사단법인 전국신문협회 The Association of National Newspaper

# 대전투데이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648호 2017년 9월 4일 월요일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 아산시 풍기 E아파트 민원 적극 대응키로

## 하자처리 미흡 · 안전 우려… 현장상황실 설치, 입주자 불편사항 등 직접 확인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풍기동에 건설 중인 E 아파트의 하자처리 미흡과 안전 우려에 따른 민원이 심각해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우선적으로 2일, E 아파트 내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현장근무를 통해 입주자 불편사항 등을 직접 확인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상담실에는 시장 비서실 직원들까지 포함해 아파트 인허가에 능숙한 직원들을 긴급 배치키로 했다. 비서실 직원까지 포함한 것은 복기왕 아산시장이 이번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아산시는 회사측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해 현장에 발생된 하자사항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사용승인은 물론 최종 준공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단, 입주민에 불편을 고려해 입주에 동의한 세대에 한해서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임시사용승인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중인 E아파트는 임시사용승인 처리전 주택법령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 의견 및 공사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아파트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2일, 임시사용승인 처리했으나 24일,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주차장 누수 등 하자사항이 추가로 발생되면서 입주예정자로부터 임시사용승인 취소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30일, 입주예정자에게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31일까지로 하고, 향후 임시사용승인 처리는 거주하는데 지장이 없는 세대에 한해 세대별 임시사용승인 처리하고 품질검수단 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주요결함 및 하자에 대해 면밀하게 진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31일 현재, 입주세대 및 이사예약세대를 포함한 273세대에 대해 9월 20일까지 세대별 임시사용승인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주체 측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사업 관계자 측의 부실 사항 등 책임이 들어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발주자의 위탁에 의한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에 미비점이 들어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책임감리는 정부 투자 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에 대하여 감리 전문 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 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 공사 관리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한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산=리량주 기자

## 천수만 고수온 피해 대응 비상근무대책반 운영 종료

충남도는 지난달 29일자로 천수만 해역 고수온 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천수만 고수온 피해 대응 비상근무대책반' 운영을 종료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천수만 해역 수온은 폭염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26℃ 이상 상승해 7월 말에는 28℃를 돌파했다.

또 8월 중순 29℃까지 오르내리며 지난 달 말까지 27℃ 이상 고수온이 지속됐다.

사상 최악의 고수온 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지난 2013년보다 더 빠른 수온 상승에 따라 도는 양식어류 생리 활성 저하, 면역력 약화로 인한 질병 발생 등으로 물고기 대량 폐사를 우려했다.

실제 경남을 비롯한 전국 5개 시 · 도에서는 32억 원 대 양식어류 폐사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는 비상근무대책반을 꾸리고,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주의보와 경보 상황에서의 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장 모니터링 및 어업인 지도 등을 중점 실시, 양식어장 고수온 피해를 막아낼 수 있었다.

도 비상근무대책반은 구체적으로 △고수온 피해 대응 행동 매뉴얼 마련 · 시행 △차광막, 액화산소 공급 등 고수온 사전 대응 사업을 추진했다.

또 △어업지도선 활용 어장 환경 및 양식장 예찰 강화 △주말 현장 점검 및 비상대책반 현장 근무 등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김정한 기자

사이언스콤플렉스 · 유성복합환승센터 추진상황 시민과 소통

## 권시장 시정 주요현안 보고

권선택 시장은 2일 오전 6시 30분 대덕구 장동산림욕장에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주최한 9월 '시민과 아침동행'에 참석해 300여 명의 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민들은 권 시장과 계족산 황톳길을 함께 걸으며 그동안 궁금했던 얘기를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톳길 산행을 마친 권 시장은 참가자들과 어울려 함께 아침 도시락을 먹으며 시정 주요현안을 시민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시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내 사이언스콤플렉스와 구암동 유성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그동안 추진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우려했던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에 대해 지난주 신세계 대표가 와서 올해 내 기공을 약속했다"며 "이곳은 시민을 위한 과학과 문화시설, 호텔, 백화점 등이 함께 들어선 대전의 명품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성복합환승센터에 대해 권 시장은 "롯데와의 계약해지 이후 해당지역 주민과 많은 시민의 걱정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후 계획을 잘 세워 내달부터 보상을 시작하고 올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제4차 산업혁명은 현재 가장 중요한 트렌드이고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며 "우리시는 이에 발맞춰 많은 대비를 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 중 상당부분을 이미 확보해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가 최근 정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허가조건 완화 등 여러 가지 특례를 받게 됐다"며 "이를 통해 대전의 첨단국방산업이 날개를 달고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 보령시 장항선 공사현장 주변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될 듯

국민권익위 합의 중재

충남 보령시 일대 장항선 공사현장 주변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항선 터널 공사로 인한 발파 등으로 지하수가 고갈돼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는 집단민원을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민원 신청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장항선 개형2단계 제3공구 노반건설 터널공사장의 발파 등으로 지하수가 고갈돼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결해 달라고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일 보령시 웅천읍사무소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보령시청, (주)한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주)한라는 지하수 고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생활용수 공급용 지하관정 7기를 개발하고 보령시가 관리하는 농업용수 지하관정을 대형관정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지하관정 개발 · 이용에 필요한 관정 위치 선정 · 토지주 사용승낙서 징구 등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보령시는 관련 행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해당 관정의 소유권은 신청인과 보령시에 귀속키로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업 관리자로서 동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마을 주민들의 숙원인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문제가 해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 "北 또 핵실험… 풍계리서 규모 5.7 인공지진"

합동참모본부는 3일 "12시 29분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현재 전군의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미군과 공조 아래 다양한 대응방안 시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풍계리 일대는 북한의 핵실험 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북한은 지난 2006년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이곳에서 핵실험을 실시했다.

우리 군과 국정원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풍계리 2번과 3번 갱도에서 언제든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주시해왔다.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할 수소탄을 새로 개발했다고 밝히며, 6차 핵실험을 조만간 실시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이 앞서 지난해 1월과 9월에 실시한 4차, 5차 핵실험 당시 인공지진 규모는 각각 4.8과 5.0이었다.

당시, 군 당국은 4차 핵실험의 위력은 4~6㎏, 5차 핵 실험의 위력은 10㎏으로 분석했다.

인공지진 규모가 0.1 올라갈 때 폭발력이 1.4배, 0.2 올라가면 2배가량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북한 핵실험의 위력은 8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1945년 8월 5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위력은 20㎏ 수준이었다.

김태선 기자

#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속해야 42% vs 중단해야 38%'

## <한국갤럽> 찬반 의견 팽팽… 건설 계속해야 한다 의견 높아지는 추세

한국갤럽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론조사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결정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42%는 '계속해야 한다', 38%는 '중단해야 한다고 답해 여전히 여론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며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중단'(51%·65%)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지지층은 '계속 건설'(82%·72%)이 우세했다. 국민의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계속 건설'(55%·48%)의 견이 '중단'(29%·23%)을 앞섰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인 7월 11~13일 조사에서는 '계속 건설' 37%, '중단' 41%였고 8월 1~3일 조사에서도 각각 40%, 42%로 양측 의견이 팽팽했다. 또한, 두 조사 모두 남성·50대 이상은 '계속 건설', 여성·40대 이하는 '중단' 의견이 우세해 성별·연령별 차이가 컸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에서 '계속 건설'(36%)과 '중단'(37%) 의견이 비슷해졌고, 20·30대 남성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다.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조사 횟수가 거듭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원은 조금 낮아졌다. 이는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의 탈원전 반대 여론 확산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31일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9%다. 김정환기자

## 세종시의회 "관내 주요 현안 집중 점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식 의원, 서금택 의원, 이경대 의원, 정준이 의원, 김복렬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원식 의원은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공공자전거"어울링"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 1개소당 2,200만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인구 50만 대비 대여소 442개와 대당 80만원인 자전거 5,035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7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2,000대 도입을 목표로 한 2020년 이후 부터 연간 20억 원 이상이 운영비로 지출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에 "키오스크 설치 비용을 줄이면 향후 97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서울과 같이 스마트 폰과 자전거 만으로 대여 및 결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금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절수설비 설치 확대 등을 통한 효율적 물 절약 실천에 세종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언했다.

서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을 웃도는 연간 강수량에 비해 활용가능한 수자원 보유량은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며, 극심한 봄 가뭄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지속될 경우, 더 심각한 '물 기근'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런 물 부족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물을 물 쓰듯 하고 있다. 이제는 시차원에서 일회성 행사나 구호가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물 관리 정책과 절약의 생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전의초수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용역 과정에 물의 성분과 효능, 지하수 양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전의초수가 세종대왕의 눈병을 치료했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전의초수의 문화적 가치 발굴 및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먼저, 실제 물의 성분과 수질, 효능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병행하여 초정약수 등 유사시설과의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전의초수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지하수 양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 및 현지 탐사 등 부존량 조사는 물론 전기 탐사 조사를 토대로 적절한 지점을 실제 조사하는 시추·보링 조사가 추가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조사들이 적정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과업에 적극 반영되길 당부했다.

정준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화, 이혼 및 비혼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정복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 학교 급식 더욱 투명하게 바뀐다

### 오인철 의원 충남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원안가결

충남지역 학교급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오인철 의원(천안 6·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급식 예산 편성·운용, 영양, 위생 등 급식 운영사항,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월간 식단표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 사진 및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하여 급식 수요자에게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토록 했다.

정보제공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과 만족도 조사를 하여 수요자 중심의 급식이 실현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간담회 실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경훈)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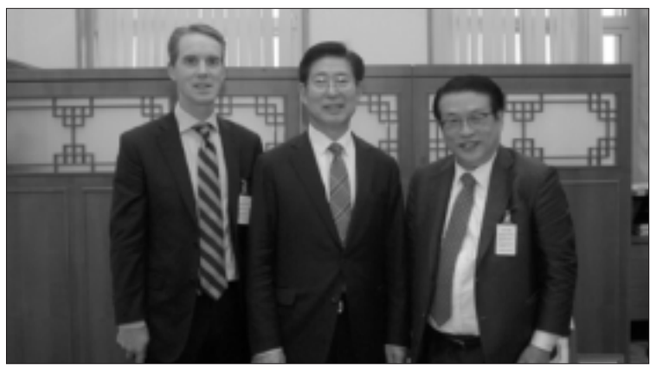
이번 인사청문간담회는 지난 8월 24일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로 내정된 유영균(58) 한국토지주택공사 AMC사업단 지점장을 대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6명과 추천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위원장 전문학) 위원이 유 후보자의 도덕성과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능력, 자질 등을 검증한다.

이번 인사청문간담회의 경과보고서는 오는 9월 18일까지 채택, 임명권자인 대전광역시장에게 전달된다.

김정환기자

## 양승조 위원장 "당뇨병 완치에 국회 차원 적극 노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당뇨병의 세계적인 기술인 인슐린펌프와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의 결합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 결합이 이루어지면 당뇨병 환자들에게 큰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세계 최초를 휴대용 인슐린펌프를 개발, 상용화한 건국대 최수봉 교수와 연속혈당측정시스템의 세계 1위 기술을 보유한 미국 덱스콤(Dexcom)의 폴 플린(Paul Flynn) 부사장과 면담하고 이같이 밝혔다.

인슐린펌프와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이 결합,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 완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1978년 서울대 재직시절 휴대용 인슐린펌프를 개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최수봉 교수와 1999년 창사 이래 최고의 기술력으로 CGMS 분야에서 줄곧 업계 선두를 유지해 왔으며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 Dexcom社(www.dexcom.com)의 폴 플린(PAUL FLYNN) 해외시장 담당 부사장이 연속혈당측정기 이용과 완전한 인공췌장 연구개발을 위한 협의와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조 요청을 위해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예방한 것.

최수봉 교수가 개발한 국내산 인슐린펌프는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세계 66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서울에서 만나 상호 공동연구, 개발과 CGMS 기술의 국내 정식 등록, 판매 방안 마련을 협의함에 따라, 기술 결합이 이루어지면 당뇨병으로 고통 받는 5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당뇨 환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보다 나은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속적인 혈당측정 데이터는 인슐린펌프 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 시 정확한 인슐린 주입량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도 환자의 저혈당 발생 빈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수많은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김정환기자

## 김행금 의원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해야"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월 31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행금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대기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 ▲ 천안시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시장은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행금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리라 기대한다"며 "우리 모두가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 제6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정치대학원 수강생 모집

### 지방선거 위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지역인재 발굴 계획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이은권)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위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지역인재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3일 밝혔다. 시당은 이를 위해 오는 19일(화)부터 11월 28일(화)까지 총 10주간 제6기 정치대학원을 개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육성해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는 방침이다.

시당은 또, 제5기까지의 정치대학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강의를 선보이며 타 정치아카데미와는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파헤치기와 소통만렙되기 전략, 유권자들의 취향저격 연설기법, 선배들의 선거족보 훔쳐보기 및 SNS 달인의 특급전략 공유하기 등의 강의 주제에서 볼 수 있듯이 딱딱한 주제를 탈피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전시민들이 쉽게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방안이다.

제6기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 정치대학원은 정치에 관심 있는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35만원 이며, 여성·청년·장애인은 50% 할인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 수강생 중 2010년 32%, 2014년 46%가 각각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았으며, 자유한국당 당선자 중 각각 2010년 62%, 2014년 51%가 정치대학원을 수강한 후 당선됐다.

이정복기자

## '6차 산업의 메카' 친환경 농공단지 벤치마킹

###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 방문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친환경 농공단지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를 방문했다.

농경환위와 충남도청 경제산업실 직원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와 장성 축령산 자연휴양림 등을 찾아 6차산업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이 복합된 이른바 '6차 산업화'의 성공사례를 충남도에 접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인 아이쿱 생협이 5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4월 구례군 용방면 일대 14만9000㎡ 부지에 문을 열었다.

이곳은 친환경 농법으로 수확한 우리밀과 쌀 등을 원료로 라면, 빵, 케이크, 막걸리, 떡 등을 가공해 판매하고 있다.

농경환위와 직원들은 라면공방과 만두공방에서 우리밀로 직접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견학하고 영화관과 소규모 공연 무대를 갖춘 비어락하우스도 방문했다.

농경환위는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농촌 경제 발전뿐 아니라 주민 복지나 문화생활이 더불어 향상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511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등 농산업 분야 청년 고용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했다.

강용일 위원장(부여2)은 "자연드림파크가 성공을 하면서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문화, 복지, 농업 등 전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점을 벤치마킹하여 우수한 6차 산업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선 위원(당진 2)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꼽히던 구례군은 이곳에서 크고 자란 젊은이들이 대부분 타지로 떠나고 있었지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청년이 늘고 있다"며 "농산업 분야 청년 고용 우수 사례로 꼽히는 이러한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사례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충주시, 2018년 정부예산(안) 4,810억원 확보

이종배 국회의원과 충주시는 1일 "2018년 정부예산(안)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정부예산(안) 확보액이었던 4,588억원보다 4.8%, 222억원이 증가한 4,8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충주시 예산은 계속사업 68건에 4,762억원, 신규사업 18건에 48억원 등 총 86건에 4,810억원이 반영되었다.

주요 계속사업비로는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사업에 2,280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 충주구간인 2~4공구 건설사업에 288억원 ▲충청·강원 119 특수구조대 설립 235억 7,300만원 ▲노은~북충주 IC간 국지도 건설 80억원 ▲국립충주기상과학관 건립 34억 2,000만원 등이다.

또 주요 신규사업비로는 ▲3D 프린팅 기반 맞춤형 의료기기 수술용 가이드 개발 기반조성 및 실증사업에 6억 7,500만원 ▲충주경찰서 신축이전 2억 4,200만원 ▲농산물종합시장 냉장물류창고 건립 6억 5,000만원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억 4,800만원 ▲산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억원 등이다.

이번 정부예산안 확보의 가장 큰 성과는 전체 나라살림 예산 중 SOC 분야 예산이 전년대비 20%나 줄어든 상황에서도 충주시가 확보한 SOC 예산은 전년대비 3%에 해당하는 120억원이나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해 충주시는 SOC 사업에 3,622억원을 확보하였는데, 올해는 SOC 사업에 3,742억원을 확보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종배 국회의원과 조길형 충주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이 공조해 각 정부 부처의 실무자부터 장·차관까지 수시로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하는 등 지역 내 주요 국비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온 결과 국비확보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년도 충주시 살림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차질 없이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복기자

daejeontoday.com

# "다양한 국책사업 선정… 융 · 복합 인재 양성"

## 대전대학교

지난 1980년 대전 유일의 순수 민간사학으로 출발한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전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열정은 교육브랜드인 V-PLAN을 바탕으로 한 사회수요중심의 신교육구조정착을 실현시켰으며 대학교육과정 및 지원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성화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주체성(Subjectivity)과 포괄적 지성(Soft-Power), 실용적 전문역량(Specialty) 등의 3S 특성을 갖춘 창의적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인재양성의 요람이자 학생 중심의 대학으로 성장해온 대전대학교는 각종 국책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등 학생 모두가 미래 사회의 표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3개 부문 선정

대전대학교는 지난 2014년 대전 지역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LINC(산학선도대학) 육성사업과 ACE(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CK-1(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3개 부분에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으며 이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과정과 현장실습 등의 많은 경험을 제공 중에 있다.

이에 대학의 제일 목표인 '잘 가르치는 대학', '잘 지도하는 대학',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라는 명성을 얻은 대전대학교는 지난달 28일 부로 끝난 LINC사업의 경우 후속 사업인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에도 최종 선정되는 등, 향후 산학협력 부분의 강화를 통한 대학의 내실을 더욱더 깊이 있게 다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진로의 길잡이

특히 다양한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970여개의 가족회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전대학교는 대학과 기업 간의 유기적인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발전은 물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Capstone Design과 현장실습 등을 운영하며 산학 상생발전에도 노력 중에 있다.

취 · 창업역량개발원(원장 송영규 교수)에서는 'Career 4D + Step' 체계에 기초한 수요자 맞춤형 취 · 창업지원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바른 인성의 함양을 통한 미래 사회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중에 있다.

세부 활동으로는 정규교과목(대학생활과 진로설계, 진로선택과 취업준비, 성공취업전략, 여대생커리어개발,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비롯해 맞춤형 캠프와 현장실무 중심형 자격증 취득과정, 코칭(엘리트취업코칭), 재학생 직무체험사업, 취업 · 창업동아리, 공모전,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CAP+), 취업지원관 전문상담 및 온라인 솔루션 지원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대전대학교 HRD 사업단에서는 지난 2015년 중부권 4년제 대학 가운데 최초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를 설정하는데 있어 최고의 길잡이가 되어 주고 있다.

◆혁신적 교양교육을 위한 혜화 리버럴 아츠 칼리지

대전대는 이러한 성과에만 안주하지 않는다. 대학의 새로운 표준이자 혁신적인 교양교육인 혜화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도입을 통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도 함께 내딛고 있다.

리버럴 아츠 교육은 인문 · 사회 · 자연과학 분야의 기본학문을 균형 있게 익힘으로써 이를 전공과 융합한 창의적 사고력과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비전교육과 기존학문중심의 '리버럴 아츠 교육'과 지역수요기반 학문역량인 '융•복합전공 교육'을 바탕으로 깊은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듀얼 특성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이에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기초학문을 두루 탐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7개 학과로의 단과대학으로 개편했으며, 성취도의 극대화를 위해 현재 혜화 레지던셜 칼리지라는 선진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 · 접목하여 실행하고 있다.

'Learn Big' 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생활중심과 현장중심, 체험중심, 실무중심의 전인적 학습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혜화 레지던션 칼리지는 생활공동체 안에서 폭넓은 인성함량을 목표로 교육을 지원하며,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향후 방과 후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함과 동시에 개별적인 맞춤형 자기계발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제5생활관이 준공되는 오는 2018학년도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더욱 확대 및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융 · 복합형 교육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리버럴 아츠 교육은 '더 넓은 자유, 더 깊은 사고, 더 높은 지성'이라는 비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인 창의적 인재 육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 대표학과

<소방방재학과>

지난 2007년 국가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소방방재학과는 소방을 비롯하여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화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어 있는 특성화된 전문 학과이다.

소방방재학과는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훌륭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많은 소방공무원과 함께 소방기술사 및 자연재해전문가, 방재 및 복구 전문 인력 등의 여러 인재들을 배출 및 진출시키고 있으며 특히 소방방재분야의 이론적 확립과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바탕으로 각종 산업현장의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관리와 점검능력을 함께 갖춘 인재 배출을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분야도 더욱 확대됐다. 소방방재학과는 군사학과와 경찰학과 및 건설안전방재공학과와 함께 설립한 '국가안전방재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지난 2014년 교육부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에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이에 소방방재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군사, 경찰, 소방, 건설방재 분야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통섭 교육과정을 함께 경험 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재난 시 위기대응 및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재난대응관리 전문가로도 육성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의 습득을 통한 다양한 사회로의 진출이 가능한 소방방재학과는 통합적인 사고력의 배양과 첨단과학지식의 습득을 통한 창의와 실용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기에 이타적이며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학생에게 추천되고 있다.

<간호학과>

간호학과는 지난 1993년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국민들의 건강증진 요구 속에 대전지역 사립대학 중 최초로 설립된 대학의 대표 학과이다.

우수한 교수진과 좋은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는 간호학과는 지난 1997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현재까지 1,500여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해 냈으며 이들은 현재 국내 · 외 보건의료계의 주역으로 성장하며 인류의 건강 수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간호학과는 신체적 ·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사랑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과이다. 아울러 인간을 전인적인 대상으로 존중함과 동시에 간호지식을 습득하고 치료적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에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전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비롯해 학과 특별프로그램과 다양한 학생자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주도성과 자율성 및 사회정의에 대한 가치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학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리고 전문간호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간호리더로서 전문적인 역량과 창의적인 간호 지도자를 배출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선정을 비롯하여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과 LINC(산학선도대학) 육성사업의 후속사업인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까지 주요 정부재정지원사업의 3개 부문에 선정된 바 있는 대전대학교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산학협력 및 역량강화 수업은 물론 급변하는 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도 함께 운영 중에 있다.

이정복 기자

## 2018학년도 수시모집서 총 모집인원의 83.9% 모집

### 이규원 대전대학교 입학처장

대전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모집인원의 83.9%인 1,898명을 모집하며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위주 유형의 전형을 실시한다. 전형별 평가방법의 기본 틀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입학전형 안정성, 전형방법 간소화, 지원자 부담감 완화를 고려했다.

▲학생부교과 : 일반전형, 교과우수자전형, 군사학과전형, 고른기회전형1 · 2, 특성화고교 졸업자전형

일반전형의 주요 특징은 면접고사 실시이다. 면접고사는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여 실시하며 다대다 면접방식이다. 반영비율은 30%로 출제문제 확인 및 준비시간을 약 15분 내외로 부여함으로써 지원자의 부담감을 최소화하였다. 교과우수자전형은 수시전형 중 가장 많은 모집인원을 선발하며 학생부 내신성적 및 출결상황만 반영하고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의 부담이 가장 적다

※ 일반전형과 교과우수자전형은 일부 모집단위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중등특수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한의예과가 해당된다.

군사학과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2차 선발에서 체력검정 및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본교의 군사학과는 육군과 군사학 발전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여 남학생 전원 입학과 동시에 군장학생으로 선발되고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한다. 고른기회전형1 · 2와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학생부 내신성적 및 출결상황만 반영하며 지원자는 전형별 세부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학생부종합 : 혜화인재전형, 지역인재전형, 농어촌학생전형

금년부터 학생부종합 유형의 전형은 학생부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20%p 낮추고 서류종합평가 반영비율을 확대했다. 이는 비교과 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잠재역량 및 학과 적합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다. 혜화인재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추천서를 받지 않는다. 1단계에서 학생부 내신성적 및 서류종합평가(자기소개서 및 학생부 활용)를 통해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한 후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면접고사는 다대일 면접방식으로 한의예과를 제외한 모집단위는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한 소양면접이다. 면접공통문항을 출제하는 한의예과는 다단계로 면접고사를 실시하며 출제문제 확인 및 준비시간을 약 15분 내외로 부여한다. 농어촌학생전형은 한의예과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타 모집단위는 미적용) 면접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종합평가만 실시한다.

▲실기위주 : 특기자전형, 실기위주전형

특기자전형은 모집단위별 인정하는 최소한의 입상실적 소지자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는 모집요강에 기재된 인정대회 및 입상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실기위주전형은 전형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실기고사가 주요 전형요소이며 반영비율이 높다. 실기고사 반영비율은 모집단위별 60% 또는 80%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원자는 실기고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끝으로 대전대학교는 장학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작년부터 신입생 장학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장학(1유형/2유형), 우수성적장학(수석, 차석, 정원내 모집단위별 20%), 특별장학(수능성적/공인영어시험), 입학금면제장학(고른기회전형1 · 2, 농어촌학생전형 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증액이 아닌 지속적인 지급방안(최소 1년 ~ 졸업시)을 통해 경제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장학제도 세부사항은 본교 모집요강 또는 본교 홈페이지(www.dju.ac.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동 정●●●

### 전국 시 · 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4일 오후 2시 제주도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 · 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 참석.

### 효문화뿌리축제 현장방문점검

박용갑 중구청장= 4일 오후 3시 뿌리공원 '제9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현장' 방문점검.

### 전국장애인체전 선수 간담회

장종태 서구청장= 4일 오전 11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참가 선수 간담회'에 참석.

### 주민참여예산편성 구민위원회

허태정 유성구청장= 4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구민위원회에 참석.

### 확대간부회의 주재

박수범 대덕구청장= 4일 오전 8시 30분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 동구 효동 100인의 원탁회의 성료

대전 동구 효동주민센터(동장 전상욱)는 효동 비학산알바위축제기획단(대표 김명진)이 주관으로 2일 천동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100인의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효동, 천동, 가오동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시 공동체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놀자! 놀자! 마을에서 놀자!' 사업의 일환으로 열려, 마을 주민들이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펼쳐졌다.

회의는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을 주제로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참여해 1조당 10명씩 총 10조를 이뤄 진행됐다.

초반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시작됐지만 점차 무르익을수록 자연스럽고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교통문제, 체육 · 문화시설 등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평소에 미처 몰랐던 마을현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우리 구에서 최초로 진행된 100인의 원탁회의가 진정한 주민자치로 가는 첫걸음이자 동구의 모범사례로써 더욱 확산되길 바라며, 회의에서 나온 의견 중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시나 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동 비학산알바위축제기획단은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 앞으로 이달 22일 가오초등학교에서 '우리마을 보물찾기'와 10월 14일 '제2회 비학산알바위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호 기자

### 극동 러시아 해외환자 유치 홍보회 · 의료협진 펼쳐

# 市 보건의료 협력 강화 합의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극동러시아 지역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대전마케팅공사와 충남대학교병원 등 4개 병원 공동으로 하바롭스크, 캄차카 지역 에이전시, 바이어, 의료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료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병원과 의료협진 등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현지시간)에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주를 방문해 주정부 보건부 장 · 차관을 접견하고 양 도시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양 정부 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MOU 체결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하바롭스크 암센터 병원과 제2병원을 방문해 러시아와 한국의 의료기술 및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양 도시의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환자케어 협진을 비롯한 의료진 교환 연수 프로그램 등을 협의했다.

대전마케팅공사, 충남대학교병원, 선병원, 이엘치과병원, 보다안과 공동으로 하바롭스크와 캄차카 지역에서 개최한 홍보설명회에서는 지역 에이전시와 다국적 보험사, 병원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 했으며 현장에서는 의료상담도 병행했다.

장건일 대전선병원 정형외과 교수로부터 진료상담을 받은 하바롭스크시에 거주하고 있는 척추디스크 환자인 달보브(45세, 가명)씨는 한국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전 선병원에 진료예약을 하는 등 진료상담 현장에서 20여명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올렸다.

캄차카시의 한 사립학교 교장은 내년도 여름방학을 활용해 러시아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전통 및 대전의료관광을 체험하고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한류의료관광 캠프에 참가를 희망하는 등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대전의료관광 홍보설명회에 앞서 대전시 4개 의료기관은 현지 에이전시와 해외환자 송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시 의료기관 실사를 위한 대전의료관광 현장 체험행사를 오는 10월 진행하기로 했다.

시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극동러시아는 지리적으로 방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며, 우리시 선도의료기술을 충분히 홍보한 마케팅 이었다"며 "앞으로 하바롭스크 등을 비롯해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다변화 마케팅전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영호 기자

### '행복한 나, 승승장구 우리'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서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일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23명을 대상으로 충북 옥천 일원에서 '행복한 나, 승승장구 우리'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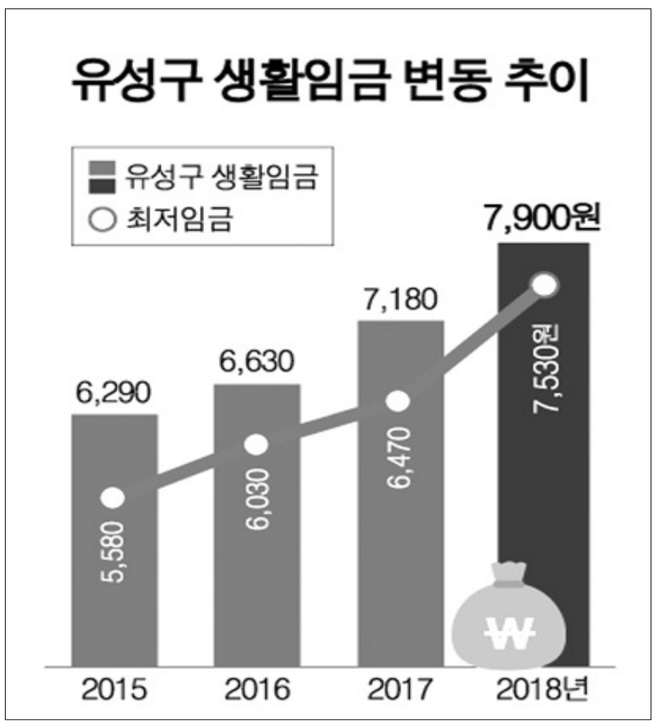
이날 행사는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찾는 힐링'을 주제로 특강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천연염색 프로그램과 브로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 7900원으로 결정

### 유성구,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지난달 30일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유성구 생활임금 시급을 7,9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 4.9%가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7,180원보다는 10% 상승한 금액이다.

또한,월급으로 환산하면 165만 1,100원(7,900원×209시간)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7만 7,33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5만 480원이 많다.

특히 ,구 생활임금위원회는 2016년 근로자 평균임금의 53%인 150만 4,050원에 적용시기를 고려 2017, 2018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 확정된 2018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8년 유성구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60여 명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생활임금제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으로 고용과 복지를 통한 선순환 경제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 공공의료 확충 지원 요청

권선택 시장은 지난2일충남대학교병원 의료재활센터에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접견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국회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어린이재활병원은 그동안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건립 필요성을 공론화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전에 우선 건립과 임기 내 완공을 약속한 바 있으며,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이다.

시 현안과제인 대전의료원 설립도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되어 보건복지부와 설립협의를 거쳐 올해 11월경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된 이날 접견에서 권 시장과 양승조 위원장은 8만여 명의 장애아동 부모의 바람인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질병 및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의 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권선택 시장은 어린이 재활병원은 재활치료, 교육, 돌봄서비스 기능이 포함된 모델로 중부권 거점인 대전에 조속히 국립으로 건립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대전은 공공의료 취약지역으로 지방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어린이 재활병원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대전의료원은 대전시 최우선 현안과제로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윤진 대전지방보훈청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김윤중 롯데백화점 대전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업무협약 체결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롯데백화점 대전점-대전지방보훈청 업무협약

## '보훈공감' 활동 펼쳐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김윤중)은 지난 1일 오후 2시,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대전지방보훈청과 '사랑 ·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롯데백화점 대전점 샤롯데봉사단은 대전지방보훈청 BOVIS와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우리지역의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대전점 김윤중 점장은 "대전지방보훈청에서 진행하는 따뜻한 보훈복지 실천에 큰 감명을 받았다. 앞으로도 보훈청과 함께 우리지역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롯데백화점 대전점 샤롯데봉사단과 대전지방보훈청 BOVIS 봉사단은 충남 금산군의 독립유공자 이일남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해 자택내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안전손잡이 시설 설치와 선물 전달 등의 '보훈공감' 활동을 펼쳤다.

송병배 기자

# 市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생후 6개월~59개월 영유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4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에서 생후 6개월~59개월 영유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올해는 지난해 병 · 의원 무료접종 초기 혼잡과 백신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날짜를 달리하고, 백신 공급도 무료 접종 백신 총량의 90%를 사업 시행 전까지 배송 완료했다.

인플루엔자 접종은 ▲ 만 6개월~59개월 중 2회 접종대상자 9월 4일(월) 부터, 1회 접종대상자 9월 26(화)부터 ▲ 만 75세 이상(1942년 이전 출생자) 어르신들은 9월 26일(화) 부터 ▲ 만 65세 이상(1952년 이전 출생자) 분들은 10월 12일(수) 부터 무료접종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 2주가량 지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평균 6개월 이상 면역 효과가 지속되며, 인플루엔자 유행이 12월이나 1월 이후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접종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초기 접종에 따른 혼잡으로 영유아 및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게 위해 연령별 접종 일정을 구분한 만큼 가까운 곳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전화해 확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호 기자

### 대덕구,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서비스 강화

## 관내 동주민센터 11곳에 차량 지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지난 1일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관내 동주민센터 11곳에 '맞춤형복지 차량'을 지원했다.

2016년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인 법2동을 시작으로 이번에 11개 동에 맞춤형복지 차량이 지원돼 기동성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맞춤형복지 차량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구 전 지역을 신속하게 찾아다닐 계획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맞춤형복지 차량을 통해 신속하고 기동성 있는 업무 수행으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희망과 꿈이 있는 대덕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 중구 중촌동 행정복지센터

## '중촌동 거리미술관' 화단 일제정비

대전 중구 중촌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주현)는 지난 1일 자생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촌동 거리미술관'에 조성된 화단의 잡초를 말끔히 정비했다.

이날 동 직원과 자생단체 회원,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은 100여 m에 달하는 거리미술관 화단에 여름내 무성히 자란 잡초를 제거하며 거리미술관 본 모습을 되찾게 했다.

한편 중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4일 어르신과 어린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솔밭공원의 무성한 잡초를 제거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공원으로 되돌려주는 등 우리동네 클린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태선기자

# 아산시 기업주도 인재발굴 사업 수료식 열려

## 2012년부터 시행 · 교육비 · 실습비 전액 무료… 올해 17명 전원이 합격

아산시가 지난달 31일, 온양관광호텔에서 기업주도 맞춤형 인재발굴육성 사업인 『디스플레이 장비 및 기구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수료식을 가졌다.

기업주도 맞춤형 인재발굴 육성사업이란 아산 소재 고교를 졸업한 시민(대졸자 포함)을 대상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 · 교육시켜 우수한 중소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산시의 대표적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수료생 90% 이상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수요 충족 및 청년 구인 · 구직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교육비와 실습비는 전액 무료이다.

2017년 사업에는 순천향대학교의 3D 프린팅 제조기술을 활용한 생산품질 관리 실무전문가 양성과정과 (사)충남디스플레이 산업기업협의회의 디스플레이 장비 및 기구설계전문가 양성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수료 전 이미 1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 디스플레이 장비 및 기구설계전문가 양성과정은 회원사 현장견학 및 실무자 강연을 통한 취업연계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정밀기계 · 로봇시스템 · 전기자동차 · 반도체 설비 등을 2D와 3D로 각각 테스트하는 솔리드워크 전문가 자격인증 시험에 교육생 17명이 응시해 17명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보였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산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지역의 우수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사업은 순천향대학교와 (사)충남디스플레이산업기업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일자리 관련기관과 교육훈련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상반기 아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 더 맛있게 업그레이드된 청양구기자라면 출시

청양군(군수 이석화)의 대표 특산품 구기자를 이용한 전략 연구개발제품으로 공부하는 수험생과 바쁜 직장인을 위한 청양구기자 라면이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업그레이드돼 출시됐다.

군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기호식품으로 접근성이 쉽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과 건강에 좋은 구기자를 접목해 올해 초 1차 시판 후 소비자 평가, 설문조사, 내부 관능평가 등을 거쳐 완성도 있는 청양구기자 라면을 탄생시켰다.

청양구기자 라면은 100% GAP인증 청양구기자 분말가루, 100% 청양산 고춧가루, 100% 우리 밀을 사용해 공부에 지친 수험생을 위한 건강 간식이나 칼칼하고 시원한 해장음식으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양구기자는 지리적 표시 제11호로 베타인 · 제아잔틴 · 비타민 A · B1 · B2 · C 등이 함유돼 있어 기억력 개선 및 학습효과 증진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건강한 라면' 이미지와 잘 부합한다.

이석화 군수는 "그동안 구기자가 한약재의 부원료로만 유통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청양구기자라면 개발을 통해 일반 기호식품시장으로 영역을 넓힘으로써 구기자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양구기자 라면은 (재)청양군부자농촌지원센터, 청양 농 · 축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9월 1일과 2일 이틀간 청양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출시기념 시식회가 개최된다.

구입 및 기타 문의사항은 (재)청양군부자농촌지원센터(041-942-9731) 또는 청양군 농업지원과 구기자특화팀(041-940-280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 롯데百대전점 신규 오픈 폴바셋 '인기'

롯데백화점 대전점에 지난 1일 신규 오픈한 '폴바셋(Paul Bassett)'이 오픈 첫날부터 고객들의 방문이 계속 이어지는 등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휴식과 만남을 위한 공간으로 백화점 1층 후문에 프리미엄 커피 전문 카페 '폴바셋'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100여석 규모의 매장으로 우리 지역에 첫번째 매장을 연 폴바셋은 룽고, 카페라떼, 라떼프라페 등 다양한 커피와 음료, 베이커리를 선보이고, 오픈 이벤트로 오는 7일까지 음료 2잔 구매시 아이스크림 1개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송병배기자

# 심사평가원 대전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지역 전문가 회의' 열려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분야별 빅데이터 활용 모델 발굴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 이하 '대전지원')은 지난달 29일 대전지원에서 지역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부 안미라 부장이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지역 모델 발굴」에 대해 발제 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분야별 빅데이터 활용 모델 발굴 방안 등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위원들은 의료정보와 관련된 의료경영 컨설팅 지원, 약제 및 처방정보 공유,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구체적인 빅데이터 활용 모델 발굴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 순천향대 PRIME사업단 우수대학으로 사례 발표

순천향대 PRIME사업단(대형분야)이 지난해부터 추진된 PRIME사업의 1차년도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2차년도 제1차 PRIME사업협의회 세미나에서는 우수사례로도 발표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21개 대학간 공유됐다.(*PRIME사업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지난해 PRIME사업 대형분야에 선정된 순천향대는 '웰니스산업 실무인재양성'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학사구조개편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구축을 통해 1차년도 사업을 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2차년도 사업에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 21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에 나선 전창완 순천향대 PRIME단 부단장은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4차 산업을 대비하고,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수사례 발표에서, 헬스케어, 제조, 미디어, 비즈니스 산업 분야의 실무 현장을 대학 내에 구현한 'Industry Inside 환경'을 구축하고, 산업체 수요를 적극 반영한 교과/비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순천향대는 신축된 SCH미디어랩스관(PRIME관) 6~7층의 Startup Plaza에 학생창업기업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트레이닝센터, 창업자율평가실, 기업 전문가 Co-work 공간 등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실전창업체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승우 순천향대 PRIME사업단장은 "1차년도 우수대학 평가를 토대로 2차년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고맛나루장터' 추석 명절 할인 이벤트 실시

### 최대 30%의 할인과 구매 금액별 최고 5만원의 쿠폰 지급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직접 운영하는 농 · 특산물 온라인 판매 쇼핑몰인 '고맛나루장터'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최대 30%의 할인과 구매 금액별 최고 5만원의 쿠폰 지급 등 '추석 명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에는 공주에서 정성스럽게 재배한 농 · 특산물로 만든 기획선물세트 2종을 출시하고 업체별 할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벤트 상품은 모두 무료 배송된다.

기획선물세트로는 고맛나루 배(특상품 6.5kg), 고맛나루 혼합선물(배 특3, 사과 특3, 햅쌀 1.6kg, 밤 1kg)로 구성했으며, 업체별 할인 상품으로는 명절인기 상품인 밤, 밤 가공식품, 쌀, 과일, 반찬류 등 100여개로 최대 3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사진제공)

특히, 이벤트 기간 동안 상품을 구입하는 회원 고객에게 구입금액에 따라 쿠폰을 지급하는 '통큰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에 있으며, 3만원이상 구입시 3천원, 5만원이상 구입시 5천원, 10만원이상 구입시 1만원, 20만원이상 구입시 3만원, 30만원이상 구입시 5만원의 고맛나루장터 디지털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맛나루장터에서는 구매 회원에게 결제금액의 3%를 고맛나루장터에서 다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상시적으로 적립해 주고 있어 이용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주=정상범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2017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 타결

### 아산시, 공무원 임금체계와 유사하게 개편 등

지난달 31일, 아산시청 중회의실에서 복기왕 아산시장의 위임을 받은 김성호 총무과장과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이귀진 위원장 위임을 받은 김관배 지회장은 2017년 아산시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공무직 임금체계가 공무원 임금체계와 유사하게 개편되었고 복리후생적 금품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 및 동일한 지급방식으로 증액 · 변경됐다.

김관배 지회장은 "교섭과정에서 대립하기도 했지만 노사양측이 머리를 맞댄 결과 공무원과 유사한 임금체계를 마련해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만족할 만한 협상을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김성호 총무과장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궁극적으로 아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순직권고 5년 만 국방부, 故 김훈 중위 순직인정

## 국민권익위, '군 의문사 진상규명 불능자' 순직 인정토록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숨진 故 김훈 중위(당시 25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의 순직권고 5년 만에 국방부가 순직을 인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5년간 군 의문사 문제해결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국회, 대법원 등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방부 중앙전사망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故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김 중위의 순직 결정이 또 다른 군 의문사 50여건에 대한 긍정적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故 김 중위 사망사건은 김 중위가 지난 1998년 2월 24일 근무지인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사망상태로 발견된 사건이다.

군은 사건 당시 '자살'로 결론지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재조사를 했지만 자살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군의 최초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급하게 '자살'로 미리 판단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논란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었다.

김 중위의 유가족도 당시 군이 타살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사건 현장의 시설(크레모아 스위치 박스) 훼손과 고인의 손목시계 파손을 간과한 점, 유류품의 위치 실측과 현장 사진 촬영 등에 소홀히 한 점, 사건 현장과 사고당시 사체 상태를 보존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자살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가족과 김 중위의 육사 동기생들(육사52기)은 2011년 9월 국민권익위에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2012년 3월 군 실내사격장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당시 상황 재연을 위한 총기 격발실험을 하는 등 정밀 재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사 초기 김중위가 '자살'한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미쳐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초동수사 과실로 자살 또는 타살 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망이 직무수행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2012년 8월 국방부에 김 중위의 순직인정을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 군 수사부실 등으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故 허원근 일병에 대해서도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으며 국방부는 두 달 뒤 이를 수용했다.

국방부가 군 의문사 진상규명 불능자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게 된 이면에는 국민권익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다.

대법원은 2007년 故김 중위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조사 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 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행해졌다"며 군의 초동수사 과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위자료 1,200만원(일부 승소)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김 중위의 자살 · 타살 여부에 대해 '현재 알 수 없는 상태'(진상규명 불능)라고 밝혔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자살 · 타살 동기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2년 8월 김 중위 사건에 대해 국방부에 순직인정을 시정권고한 뒤, 2013년에 국방부의 순직 관련 법규에 '진상규명 불능자'의 순직 인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대표적 군 의문사인 故 김중위, 故 허일병의 순직 결정을 계기로 또 다른 군 의문사 50여건의 조기 해결을 기대한다"며, "군 복무 중 사망자와 유가족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만들어지면 군이 더욱 신뢰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daejeontoday.com

# 산림청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산림청이 봄철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 · 산촌지역의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마을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남양면 대봉1리, 비봉면 관산리를 2017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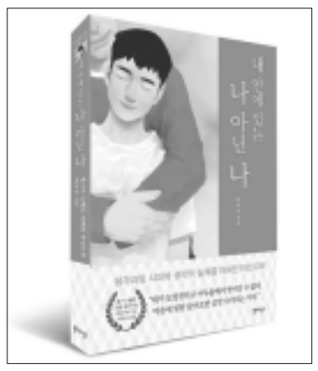
청양군의 이들 3개 마을은 논 · 밭두렁, 농산폐기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 소각 안하기를 서약하고 서약기간 중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법으로 소각한 사실이 없어 이를 충실히 이행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불법 소각이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소각근절 문화 확산에 마을 단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박옥수 목사 저서 출판 기념회 개최

###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있는 해법 제시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마음을 파는 백화점'의 저자 박옥수 박사의 신간 마인드북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온마인드)' 출판기념회가 3일 오후 6시 IYF 대전센터에서 개최됐다.

국제청소년연합(IYF)의 설립자인 저자 박옥수 박사는 일찍이 지식과 기술 중심의 교육이 더 이상 청소년들을 변화 · 발전시킬 수 없다고 예견, 20여 년 전부터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활발히 실시해오고 있다.

출판사 온마인드 관계자는 "최근 고통 속에 잠들고 절망 가운데 눈을 뜨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행복 속에서 잠들고 희망 가운데 눈뜨게 해주고 싶다는 필자의 염원을 담아 출간한 책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이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책에서 독자들에게 '생각의 존재'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우울증, 허언증, 조울증, 대인기피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심인성 정신질환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 시대에 불행으로 이끄는 마음의 경로를 규명해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영호기자

# 공주시, 버스정보시스템(BIS) 개통식 가져

###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 개선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 1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BIS)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는 무인 종합안내시스템인 키오스크가 설치된 종합버스터미널, 유구터미널, 공주역에서도 동시에 제막 행사를 갖고 버스정보시스템(BIS) 개통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공주시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은 지난 2015년 세종시와 공동으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31억 2500만원(공주시 18억 2500만원, 세종시 13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버스정보시스템(BIS)은 버스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교통시스템으로 각 버스에 설치된 차내단말기(OBE)로 버스 운행상황을 교통정보센터로 보내면 이를 각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표시해 준다.

이를 통해 승객들은 몇 분 뒤에 버스를 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버스를 타고 있는 승객도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http://bis.gongju.go.kr)으로도 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버스 운행상황을 알 수 있다.

시는 주요 다중 이용 시내버스 승강장 73개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설치했으며, 이로써 시민들은 버스 도착 예정정보(노선번호/대기시간/현재 버스위치 등) 및 잠시 후 도착 버스 정보는 물론 생활정보인 날씨, 실시간 뉴스, 시정홍보 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시청 종합민원실 등 다중 집합시설 5개소에는 키오스크(무인 종합안내시스템)를 설치해 LCD화면 터치기능을 통해 버스정보 및 교통정보, 관광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 백석문화대, 고교요리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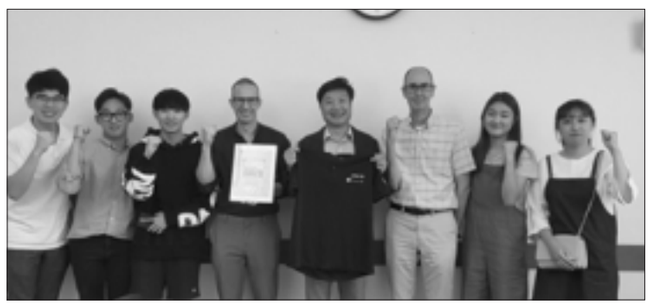
### '우리 땅 우리 식품을 활용한 건강요리' 주제로 진행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장종현)는 8월 31일 교내 글로벌외식관에서 '제1회 백석문화대학교 총장배 고교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참가 종목은 '조리부문: 건강 저염요리', '제과부문: 디저트류' 두 분야로 구성되며, '우리 땅 우리 식품을 활용한 건강요리'라는 주제 아래 대회가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한식 세계화에 발맞춰 고등학생들이 우리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요리를 개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총 18개 고등학교 36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천안=김정환기자

# 외국인 교원 지역아동 위한 기부

### 한남대 린튼글로벌스쿨, 선행 몸소 실천



한남대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린튼스쿨) 소속 외국인 교원들의 선행이 화제다. 린튼스쿨 외국인 교원 4명과 직원 1명은 린튼국제홍보대사(LIA) 학생들이 추진하는 '린튼 영어 캠프' 사업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 6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7월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같이 가치 with Kakao' 주관으로 열린 '봉사왕 나야 나' 프로젝트에 선정된 '린튼 영어 캠프'는 지역 아동들을 위한 영어 멘토링 봉사와 영어캠프, 문화체험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진행 될 계획이다.

학생들은 모금 촉진을 위해 지난 18일 한남대 코스모스 졸업식에서 포토존을 운영했으며, 한남대 교직원들과 지역 카페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이정복기자

# 순천향대 등 8개 대학, 충남교육연구정보원과 업무협약

### 공교육 활성화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약 체결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31일 오후3시, 교내 앙뜨레프레너관 특별 회의실에서 순천향대를 포함한 충남서북부지역 8개 대학이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과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공특강 및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개별적으로 중,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요청하는 진로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단일 대학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권역내 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진로 설계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운영을 체계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체결과 사업 주관 대학인 순천향대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따라 8개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시설, 교육컨텐츠를 보유한 대학이 도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체험 기회를 선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창의적 인재육성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기로 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명 순천향대 입학처장은 "대학을 둘러싼 입학관련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는 만큼, 대학과 수험생 두 입장 모두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대학을 다닌 학부모와 일선 선생님들조차 바뀐 입시제도와 환경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번 공동사업을 통해 진로체험 기회가 마련된다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관계자들은 "관내 중, 고등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통한 진로의식 구체화가 가능하고, 교육 소외지역 학생들의 진로체험 제공을 확대하면서, 대학 주도가 아닌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특성이 반영된 체험이 가능해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충남지역 40개교 중 고등학생 4,00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9월중에는 각 대학의 60여개 학과가 전공특강 및 전공체험에서 매칭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내년 1월까지 도내 중, 고등학생 10,000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순천향대를 비롯해 공주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천안캠퍼스), 선문대,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 8개 대학과 20여명의 관계자,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가 참여한다.

아산=리량주기자

# 군 장병에게 보낼 감사편지 접수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온 · 오프라인 통해 캠페인 추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노고에 감사하고 병역이행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온 · 오프라인을 통해「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캠페인을 추진한다.

올해 주제는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자랑! 국군장병 여러분 고마워요'로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엽서에 글을 작성해 관할 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편지쓰기 접수 페이지(https://mma.go.kr/letter_event2017) 또는 '레터플라이' 이벤트 페이지(https://www.letterfly.co.kr/register_event_thanks)로 접속해 감사편지, 응원영상, 사진, 포스터 등을 작성해 등록하면 된다.

송병배기자

**철도공단,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8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제43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8.28~9.1)에서 8년 연속 대통령상(금상1 · 은상1 · 동상2)을 수상했다.

**한밭대, 염홍철 석좌교수의 '음악이 있는 토크 콘서트'**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가 2학기 개강과 함께 명물강좌인 염홍철 석좌교수의 '음악이 있는 토크 콘서트'를 시작했다.

## 태안해경, 음주운항 꼼작마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에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음주운항 선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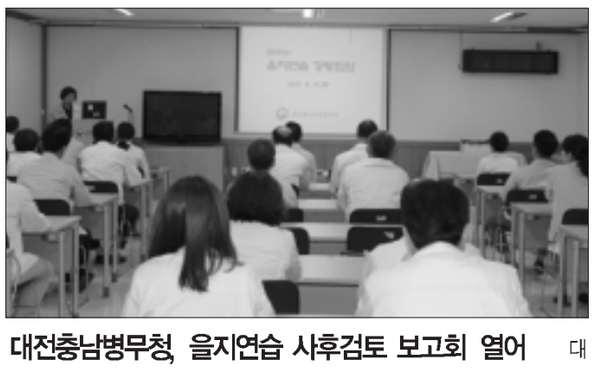
이번 음주운항 선박 집중단속은 9월 4일부터 5일간 홍보계도 후 9월 9일부터 2주간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 예정되고 특히, 음주 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경찰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로 전환** 청양경찰서(서장 남경순)는 지난 1일부터 주민이 희망하는 순찰시간과 장소를 파악해 해당시간대에 그 지역 위주로 집중 순찰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아산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해단식 가져** 아산소방서(서장김득곤)는 여름철 피서객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운영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수난안전사고 제로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난 31일 해단했다.

**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홍성소방서(서장채수철)는 지난 1일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내·외빈 및 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7 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공주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공주경찰서(서장육종명)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신월초등학교를 3차례 방문해 유치부와 전교생 1,100명을 대상으로 학년별·눈높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충남병무청, 을지연습 사후검토 보고회 열어**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지난달 31일 2017년 을지연습 자체 강평 보고회를 개최했다.

#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취소·환불 표시 미흡"

## <한국소비자원>조사결과… 소비자 오인가능성 있는 표시 개선해야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위한 호텔 예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글로벌(해외)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이하 '호텔예약 사이트') 4개에 대해 취소·환불, 요금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의 제공 실태 및 소비자피해보상률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사이트 대부분 호텔 검색 시에는 세금 및 봉사료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호텔을 선택하여 예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야 세금, 봉사료 등이 포함된 '총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과 오인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검색 시에는 세금 및 봉사료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조사 객실 리스트페이지에는 세금 및 봉사료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조사 텔을 선택하여 예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야 세금, 봉사료 등이 포함된 '총 숙박요금'을 표시. 취소·환불 정보의 경우,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은 환불불가 표시를 적색으로 진하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계약 시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환불불가 표시를 별도의 강조 없이 다른 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환불불가' 표시 대신 '특별조건'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환불불가 상품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익스피디아'를 제외한 3개 사업자는 취소수수료와 무료취소 마감시간 등 중요한 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특정 표시나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야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글로벌 호텔예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호텔 검색 시 숙박요금 총액 미표시, 환불불가 표시 미흡 등 소비자 오인가능성 있는 표시를 개선할 것과 국내 고객센터 마련 등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사업자에게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하여 해외구매가 활발한 주요국가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피해다발 사업자와 컨택 포인트를 확보하는 등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동 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 경덕공업고, 대전생활과학고로 교명 변경

경덕공업고등학교(교장 김효진)은 9월 1일부터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는 최근 교육부 주관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에 선정되고, 고용노동부 주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는 최적화된 교육환경, 지속적인 학과 개편과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이번 교명 변경까지 브랜드 파워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대전의 취업 선도 특성화 학교로 주목받고 있다.

김효진 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맞춰 기존 건축인테리어과, 전기전자과를 기반으로 바이오케미컬과, 화장품응용과학과 등 다양한 생활과학 분야에서 인성이 바르고, 창의적인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여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명을 변경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정환기자

## 건양대 대학평의원회 " 대학 안정 찾도록 건양인 모두 노력해야"

### 건양대 총장 및 부총장 사퇴와 관련 긴급 회의

건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장 안상윤 병원경영학과 교수)는 1일 오후 논산 창의융합캠퍼스에서 최근 건양대 총장 및 부총장 사퇴와 관련 긴급 회의를 갖고 사태 해결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에 따라 교원, 직원, 학생 및 동문 등으로 구성되는 법정기관으로 대학의 발전계획 및 학칙,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 및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다.

대학평의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양대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건양인 모두의 자제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평의원회는 "학내의 모든 문제를 다 파헤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구성원도 있고 중립적 또는 반대의 견을 가진 구성원도 있지만 지금처럼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 된다면 내부 구성원의 갈등이나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때문에 대학평의원회는 "이사회가 새로운 총장의 선임 절차를 준비 중이다. 새 총장이 선임되면 구성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감정을 추스르고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또한 "아직 젊은 건양의 교직원들과 자부심을 갖고 입학한 학생들의 장래와 명예를 위해서라도 대학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정복기자

## 경찰청,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 미연 방지 위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금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18.2.9~2.25) 등을 대비하여 예년 연 1회 실시하던 것 연 2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에 이어 2차로 실시하는 것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과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봉관기자

## 공익신고,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국번없이 ☎110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고재철)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를 당부했다.

공익신고제도란 산업안전 위반, 부실시공, 폐수 무단방류, 정부예산 부당사용, 기업간 담합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79개 적용대상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공익 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주체는 국민 모두 가능하며, 신고는 인터넷창에「청렴신문고」를 검색해 입력하거나 국번없이 ☎ 110번 또는 1398번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신분은 법률에 의거해 철저히 보장되며, 불이익조치도 금지된다. 또한 내부공익신고자에게는 공익신고로 국가 수입이 회복·증대된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송병배기자

## 충남경찰청, 학교전담 경찰관 역량 강화 워크숍 가져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학교전담경찰관 등 90여명 참석…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 추진 총력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학교전담경찰관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학기초 학교폭력 및 교내 성범죄 예방 활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김재원청장은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기여한 유공자 금산서 경장 송민지, 천안서북서 순경 정안나, 보령서 순경 김미진 등 3명에 대하여 표창하고 격려했다.

내포=김정한기자

## 예산소방서, 의무소방원 진급신고식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1일 서장실에서 의무소방원에 대한 진급 신고식을 가졌다.

이번 진급 신고식에서는 김대수 이방이 일방으로 진급했다.

의무소방원이란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 재해 발생 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23개월의 군복무를 소방기관에서 대체 복무하는 신분으로서 예산소방서에는 총 8명의 의무소방원이 소방활동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주태 서장은 "앞으로도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보조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예산=양성업기자

## "소방민원센터로 간편하게 민원신청하세요"

### 청양소방서, 소방민원센터 활용 홍보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가 민원인들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소방민원센터(이하 소민터)'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민터(http://www.somin.go.kr)'는 민원인들이 소방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소통창구로 간편하게 소방민원을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접 민원인이 소방서로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소민터 가능 민원은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등이다.

이정훈 예방교육팀장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서천소방서, 벌집제거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9월 1일 현장대응단 및 구조대 대원들을 대상으로 벌집제거 활동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다.

# "구직자 88%, 중소기업 지원할래"

## <사람인>조사결과… '취업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첫번째로 꼽아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는 구직자 10명 중 9명은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하반기 중소기업 지원 의향'에 대해 구직자 3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9%가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려는 이유는 '취업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41.6%, 복수응답)를 첫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자격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워서'(36.2%), '괜찮은 알짜기업도 많아서'(35.9%), '회사규모는 관계없어서'(32.3%),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24.6%), '경력을 쌓기 위해서'(21.9%)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근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12.3%), '승진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7.8%), '성과 압박이 덜할 것 같아서'(7.5%), '근무 강도가 약할 것 같아서'(4.8%) 등이 있었다.

입사 지원할 중소기업을 고르는 기준은 '연봉'(51.2%,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출퇴근 거리'(49.1%), '복리후생'(47%), '안정성'(42.8%), '성장 가능성'(33.5%), '조직 문화'(26.6%), '직무'(22.5%), 'CEO 및 경영진'(10.5%)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 지원 시 희망하는 연봉수준은 평균 3,109만원으로 집계됐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평균 2,527만원), 2, 3년제 전문대학(2,866만원), 4년제 대학(3,036만원), 대학원 이상(3,973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올 상반기 중소기업에 지원해 본 경험이 있을까?

상반기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329명) 중 67.8%는 입사 지원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96.4%는 중소기업 지원 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려움으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45.1%, 복수응답)을 1위로 꼽았다. 이어 '채용공고 내용 부실'(41.9%), '지원 후 결과 확인 어려움'(38.6%), '성별, 연령 등 차별 조항 있음'(37.2%) 등을 들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62.4%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해, '부정적이다'(37.6%)보다 높았다. 특히, 중소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7.1%가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밝혔다.

생각이 바뀐 이유로는 '알짜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 증대'(53.5%,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중기 취업자에 대한 혜택 증가'(34.6%), '성공한 중소기업 출신 인물 증가'(23.9%), '중기 취업한 주변인들의 추천'(20.8%) 등을 들었다.

이정복기자

## 직장 내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교육

### 충남도교육청, 부여성폭력상담소의 배명옥 센터장 초청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일 본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해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은 부여성폭력상담소의 배명옥 센터장을 초청해 '여러분의 관심이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성매매 · 가정폭력에 대한 관점의 전환으로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해 배려와 존중이 있는 안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매매 현황, 성매매 유형, 성매매 관련 법률 및 관점, 성매매 예방을 위한 개인 및 사회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의 피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 등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정복기자

**세종 두루중, 학교뉴스제작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세종시교육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주관하는 「2017 대전미디어페스티벌(이하페스티벌」 학교뉴스제작경진대회에서 관내 두루중학교(나솜이 외 4명, 지도교사 정진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 대전교육청, 청렴 캐치플레이즈 공모전 시상

### 청렴문화 확산 위한 캐치플레이즈(표어, 문구) 총 14편 우수작 선정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월 1일 대전교육청 대강당에서 2017년 청렴 캐치플레이즈 공모전 결과, 선정된 우수작품 14편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 캐치플레이즈 공모전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4일간, 각급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 학생, 학교운영위원, 운동부코치 등을 대상으로 공모해 총 505건의 작품을 심사했다.

선정된 우수작품은 학생부문 7편, 교직원부문 7편 총 14편(대상 2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이며, 학생부문 대상에는 대전탄방중학교 전서원양의 '부패는 소탐대실 청렴은 소탐대박'이, 교직원부문에는 본청 학생생활교육과 정현숙 사무관의 '함께해요 부패청산 실천해요 청렴약속'이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대전교육청 홈페이지 청렴투명행정 반부패 · 청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캐치플레이즈는 대전교육청 각종 홍보사업(홍보전광판, 공문서 상단) 문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청렴문화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과 그 외 학교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우수한 작품이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렴 캐치플레이즈 공모전을 계기로 교육가족이 청렴실천을 생활화하여 청렴도 최우수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방과후학교 맞춤형 순회강사 2차 연수

### 예산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맞춤형 순회강사 60여명 대상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은 2017년 8월 31일(목) 예산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사단법인 더울림 주관으로 예산 · 홍성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맞춤형 순회강사 6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맞춤형 순회강사 2차 연수'를 성황리에 실시하였다.

이은복 교육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함께 행복한 예산 교육을 만들기 위해 방과후학교 순회강사들의 역량"을 강조하며, "학교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순회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예산지역 김용필 교육위원이 참석하여 예산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방과후학교 순회강사들을 격려하였다.

이 날 연수에서는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2학기 위탁 추진 방향 및 내용 협의,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복무 및 유의사항 안내,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강화 방안, 심폐소생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출석부와 강사활동부 작성 점검 등 행복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알찬 연수가 진행되었다.

예산=양성업기자

## 당진초, 2학기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연수

###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하고 소통하는 교육과정 설명회

당진초등학교(교장 심재진)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7학년도 2학기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과정 안내를 통해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학교교육활동의 협력 및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행복당진교육을 위해 당진초등학교에서 지난 학기동안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소개와 함께 2학기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교육 중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안내 및 아동학대(가정폭력)예방 교육과 이번 연수를 위해 초청된 유경진 당진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안전폭력예방 특강도 실시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제32대 아산교육지원청 이심훈 신임 교육장

## 현충사 본전 찾아…참배로 공식일정 시작

지난 1일, 취임한 제32대 아산교육지원청 이심훈 신임 교육장은 오전 9시, 간부직원 10여명과 현충사 본전을 찾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대한 참배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순신 장군처럼 몸과 마음을 수련해 문무를 겸한 선비정신을 갖추는 것이 참된 공부이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충절의 인재로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첫 일정으로 새긴 것이다.

참배를 마친 후 오전 10시에 아산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 직원 소개를 겸하여 특별한 의전이나 행사 없이 간소하게 취임했다. 전입 직원을 환영하는 맵시꽃(코르사주)도 나라꽃인 무궁화로 준비해 충절의 고장에 부임함을 상징적으로 새기면서 본격적인 집무를 시작했다.

이심훈 교육장은 "교육이 가정과 국가의 미래라는 인식으로 교육 투자에 경쟁적인 시대에, 아산 교육 발전이 아산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교육 지원으로 밤하늘의 별처럼 맡은 일에 창의적으로 반짝이면서, 아산이라는 이름으로 결집되는 아름다운 별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와 감성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홍성교육지원청, 제30대 우길동 교육장 취임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은 9월 1일 오전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대 우길동 교육장의 취임식을 실시하였다.

신임 우교육장은 1986년 경북 봉화여고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여 금마중, 광천상고, 홍성고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홍성교육청과 충남교육청 장학사, 배방고 교장, 충남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 장학관 및 과장을 역임하였으며, 풍부한 학교현장 경험과 전문직을 거치는 동안 학생인성 · 생활 · 보건 · 체육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춰 충남교육계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우길동 신임 교육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향에서 근무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생각과 함께 책임감 또한 무겁게 느끼며,『홍주의 얼 계승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홍성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정한기자

## 태안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운영

태안교육지원청 태안도서관(관장 안홍원)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이 책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9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내용은 책 읽는 모습 사진 공모. 권정생 아동문학가 작품 독서퀴즈. 도서관에 바란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독서왕을 뽑아라. 우리가족 독서대 만들기. 책사랑 도서 나눔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특히 '책 읽는 모습 사진 공모'는 서부평생학습관(관장 김갑배) 주관으로 서부지역 8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공동 협력하여 운영하는 행사이며, 지역 도서관에서 우수작을 선정 및 추천하여 본 심사를 통해 시상 및 전시할 예정이다. 이는 서부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태안=김정한기자

## 공주마이스터고, 고졸 공채 17명 합격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는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영 마이스터를 육성해 올해 고졸 공채에서 삼성전자 13명, 한국전력 4명 등 총17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공주마이스터고 취업담당 교사는 "학생들이 이번 공채에 임하면서 무엇보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대견스러웠고, 그 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더욱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졸 취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하기를 바라며,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마다 삼성전자는 전국의 고졸 및 고졸 예정자를 대상으로 6월 중순 부터 7월 중순까지 GSAT(글로벌 삼성직무적성검사)시험, 전공 및 인성 면접의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한편 한국전력은 전국의 고졸 및 고졸 예정자를 대상으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서류전형, 직무능력검사 및 인성검사, 직무면접, 경영진면접의 과정을 거쳐 송배전 분야의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금산교육지원청, 9월 생일 맞은 직원 축하 행사 가져**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은 지난 1일 청내 3층 회의실에서 전직원 50여명과 함께 9월 생일을 맞은 직원을 축하해 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금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3사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벤트로, 생일 맞은 직원들을 위해 케익과 선물을 전달하며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 ●동 정●●●

### UN 인권이사회

안희정 충남도지사= 4일 UN 인권이사회 참석(8. 31 ~ 9. 6, 스위스).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4일 오후 2시에 하얏트 리젠시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

### 9월 중 직원모임

김석환 홍성군수= 4일 오전 8시 40분 군청대강당에서 열리는 9월 중 직원모임에 참석.

### 충남도의회 상생협력 협약식

윤석우 충남도의회의장= 4일 낮12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

# 100일 간 생활 · 법률 등 6588명 상담

## '개소 100일'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지원군' 자리매김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1522-1866)'가 외국인 주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5월 문을 연 이후 6500명 이상 상담을 진행, 외국인 주민들의 각종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 ·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 상담과 통역 서비스, 생활법률 및 부동산, 통신, 금융, 의료 등의 정보를 제공 중이다.

서비스 언어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동티모르어 등 15개로, 8개 언어는 상시적으로, 7개 언어는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가 5월 16일부터 지난 23일까지 100일 동안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화 통화와 방문, 온라인 등을 통해 상담을 가진 외국인 주민 등은 총 6588명으로 집계됐다.

상담자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3235명으로 가장 많고, 결혼이민자 955명, 외국 국적 동포 356명,

유학생 205명, 귀화인 121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한국인과 관련 기관 및 단체 상담도 550명, 338명으로 상당한 숫자를 보였다.

관련 기관 · 단체는 외국인 지원기관 115명, 노동기관 84명, 경찰 등 수사기관 28명, 금융기관 22명, 의료기관 13명, 법률기관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언어별로는 상시 지원의 경우 베트남어 1172명, 한국어 691명, 인도네시아어 639명, 중국어 628명, 태국어 477명, 캄보디아어 282명 등으로, 부분 지원은 몽골어 714명, 네팔어 615명, 러시아어 431명, 필리핀어 270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담 내용은 취업 및 노동이 21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정보 939명, 체류 및 국적 842명, 금융 · 부동산 798명, 교육 742명, 의료 321명, 일반법률 278명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부 · 가족 갈등이나 폭력 피해는 78명에 달했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으로는 체불임금 수급 방법, 불법체류자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회사에서 퇴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는 방법, 비자 연장, 산재 보험 처리, 전공 또는 학교 변경 시 체류자격 문의 등이 있었다.

상담에 따른 조치는 상담사 직접 상담(안내 등)이 5079명, 통역 750명, 정보 제공 378명, 번역 44명 등이며, 노동기관 통보 19명,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윤동현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의사소통이 어렵고, 제도나 문화 등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으나, 지난 100일 동안의 운영 결과로 볼 때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가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 2015년 11월 현재 8만 8189명으로 집계됐으며, 천안이 2만 6194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 2만 38명, 당진 7936명, 서산 5984명, 논산 538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정한 기자

충남도 2018년 생활임금액 시급 8935원 결정

# 향후 민간부문 적용 확대 고려

충남도가 2018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8935원으로 1일 고시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보다 1405원(18.7%) 높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6만 7415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소속 근로자와 출자 · 출연기관 근로자를 포함해 520명 내외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는 강도묵 위원장과 김영범 경제통상실장, 유흥수 예산담당관 및 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근로자, 사용자, 도민, 전문가 등 각 분야 대표 등 생활임금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회는 2018년도 생활임금액 결정에 앞서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종전의 상대적 방식(최저임금의 n%)에서 벗어나 절대적 방식(소득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액 및 도 생활물가지수 고려)으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정으로 '임금 근로자 가구의 표준적 · 인간적인 생활수준 보장'이라는 생활임금제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심의회는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종전의 '기본급+급식비+교통비'에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는 '통상임금'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본급은 낮지만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수령 임금이 높은 근로자보다는, 실제 임금보전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생활임금 내실화가 기대된다.

더불어 이날 심의회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검토(민간위탁부문)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 확대 △이해당사자 참여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은 "생활임금 적용을 위한 예산으로 약 5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심의회는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이라는 법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향후 민간부문 적용 확대까지 고려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한 기자

### 홍성농기센터 귀농촌학교 운영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는 서울시 귀농귀촌교육과정 수료생 및 과정생 41명을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홍성군 일원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귀농촌학교를 운영했다.

이는 지난 6월에 체결한 『서울특별시와 홍성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에 따른 귀농 · 귀촌 희망 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협력사업 이행 추진의 일환이다.

군은 맞춤형 친환경 유기농법 교육으로 친환경유기농업의 메카로 불리며 귀농귀촌 1번지로 급부상하는 있는 홍성군의 매력을 부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판단이다.

금번 귀농촌학교는 유기농법 및 유기농자재 만들기, 주요 작물재배 노하우 등과 같은 농업 · 농촌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의 교육과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적정기술, 농기계 다루기, 귀농 선도 농가 탐방 등 체험형 현장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귀농촌학교에 참석한 서울시민은 "귀농하면 단순히 벼농사를 지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귀농 선도 농가를 방문하면서 농업에도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고 어떤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홍성=김정한기자

예산군, 올해 태어난 아기 황새 북한 다녀오다

# 한반도 평화 위한 희망의 날갯짓

예산군에서 올해 태어난 9마리의 아기 황새들이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 이후 일부 아기황새들이 북한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군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반도 죽음의 백조 출격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기 황새들의 희망의 날갯짓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올해 태어난 9마리의 아기황새들은 건강하게 자라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둥지에서 내려오기 시작해 지난 7월 11일 막내 황새가 둥지를 떠나 자연으로의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 이후 논과 하천, 무논습지 등에서 적응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30일 아기 황새들에게 부착한 발신기로 위치 정보를 확인한 결과 광시면 장전리에서 태어난 황새 중 한 마리(개체번호 A85)가 북한 평산, 배천, 문천시 등지에서 1개월가량 머물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했으며 현재는 안산시 대부도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그 외 아기 황새 3마리도 군을 떠나 타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그 중 광시면 관음리에서 태어난 황새 2마리가 북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수경 예산황새공원 선임연구원은 "어린 황새들은 나이가 많은 황새에 비해 이동 거리가 많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세력권을 형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황새가 건강하게 자라 북한을 다녀온 것은 지난 2010년부터 우리 군과 한국교원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그동안 노력에 대한 보답인 것 같다"며 "자연에서 부화한 황새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에 희망의 날갯짓을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방사한 황새 중 올해 3쌍의 번식 쌍이 형성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11마리의 아기 황새가 부화에 성공했으며 그중 2마리의 유조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또한 군은 지난 5월 12일과 14일 올해 태어난 아기황새 2마리 이소를 시작으로 5월 말까지 6마리의 아기 황새와 지난 7월 11일까지 3마리 황새 등 총 9마리의 건강히 자란 어린 황새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예산=양성업기자

# 세종 장군 승마장 9일 개장

## 주변 환경 양호 외승 시 시원한 공기 마시며 풍경 감상

세종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각종 취미 생활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세종 장군 승마장'이 오는 9일 개장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 한솔동 인근 장군면 금송로에 위치한 '장군 승마장'은 대지 1000여 평에 실내(200평) · 실외(800평)마장을 갖춰 4개절 승마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됐다.

이곳은 취미 생활을 위한 동호회 운영,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학생승마체험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행복도시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신도심 어디에서나 접근성(30분 이내)이 양호하다. 또 강변과 산책로가 인접해 있어 외승 시에는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풍경도 감상 할 수 있다. 체험 등 이용문의는(044-863-3315. 010-2642-8945)로 하면 된다.

업체 관계자는 "최근 승마가 생활스포츠로 정착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승마장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라며 "유 · 초 어린이 승마 체험을 위해 개장 후 조랑말, 마차 등도 보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정복 기자

#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첫 번째 오픈

## 7일부터 한옥동 · 컨테이너동 입주작가 5팀 작업실 개방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첫 번째 '오픈 스튜디오' 행사 연다!

이응노의 집에서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오픈 스튜디오' 행사를 통해 한옥동 · 컨테이너동 입주작가 5팀의 작업실을 개방, 입주작가들의 예술세계를 함께 할 수 있다.

오픈 스튜디오 개막행사는 7일 목요일 한옥동을 거쳐 컨테이너동을 돌고 감상하며, 컨테이너동에서 개막식 및 입주작가와 예술작업 소개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특히 개막식 후 컨테이너동 입주작가인 순리필름(박영임 · 김정민우)의 '라이브 시네마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순리필름은 홍성 장곡저수지를 배경으로 인간 내면의 고독을 그린 무성영상 'We are all stranger You are alone'을 상영하고 동시에 자연으로부터 영감 받아 작곡한 음악을 연주한다.

8일에는 한옥동 입주작가 이섭은 컨테이너동 세미나실에서 방문객 누구나 참여한 가운데 '레지던시 프로그램 공공성'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된다.

송재영의 기억보관소에 서는 '당신의 기억을 보관해드립니다'는 주제로 3일간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관람객 대상으로 인터뷰하며 그동안 진행한 지역협력형 프로그램 영상물을 상영한다.

마지막 9일에는 작가의 작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 전문가를 초청하고 컨테이너동 입주작가인 김도경, 손민광, 순리필름(박영임 · 김정민우)을 대상으로 작품 발표, 비평, 토론 등의 '전문가 비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편 이응노의 집 한옥동 · 컨테이너동 창작스튜디오는 고암 이응노 화백 선양을 위해 6월 초 문을 열었으며, 현재 5팀의 입주작가들이 개인 작업 및 '이응노마을'에서의 지역협력형 작업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입주작가들은 8월 24일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비쥬얼미디어아트(VM)미술관과 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nu-e)를 방문하였고 완주와 홍성 두 곳에서 오는 9월 말, 교류전 및 포럼행사 등을 열 예정이다.

홍성=김정한기자

### 다채로운 독서 문화행사 마련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주민센터(동장 임미라)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원화 전시 ▲행사기간 내 도서 3권 이상 대출자 독서명언이 담긴 포춘쿠키 증정▲영화상영 ▲북아트로 만나는 계절 '가을' ▲인형극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공연 등을 선보인다.

임미라 고운동장은 "도서관을 일상적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도서관 방문 또는 전화(044-301-6662)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세종=김정환 기자

### 직장 내 4대 폭력 통합교육 실시

예산군은 1일 문예회관에서 열린 9월 직원 월례모임에서 4대 폭력(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되는 법적 의무교육으로 이날 교육은 공직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폭력 관련 전문 강사인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초빙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폭력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염건령 강사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처방안 및 예방방법, 처리절차 등 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점점 다양해지는 각종 폭력에 대해 직원들이 심각성을 일깨우고 상호간 존중과 배려가 함께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 승강기 갇힘사고 대책 마련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는 급증하는 승강기 갇힘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세종시는 급격한 도시개발 및 건축물의 대형 · 고층화로 인해 승강기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연평균 승강기 사고 증가율도 11.1%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7월 31일 현재 세종시 내 설치된 승강기는 4,364대로, 올해(8월 31일 기준)만 113건의 승강기 갇힘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아름동 소재 아파트에서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하여 시민 16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세종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승강기안전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는 승강기에 대해 현장점검 및 관리주체에 대한 유지관리 교육, 사고발생시 신속출동 요청 등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푼다

## 충남도내 중소기업 대상 최대 1억 지원… 20일까지 신청 접수

충남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 · 부자재 구입대금 등 일시적 자금 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중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실행해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 중인 기업으로, 기존 융자액이 2억 원 이하인 업체다.

지원 조건은 최대 1억 원으로, 도의 2% 이자보전을 받아 2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이번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시 · 군청 경제과를 통해 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 군청 경제과 또는 도 기업통상교류과(☎ 041-635-2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순 도 기업통상교류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기에 자금이 도내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한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 동정

### 보훈정책 설명회

김홍장 당진시장 = 4일 오전 11시 30분 보훈회관 회의실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보훈정책 설명회에 참석

### 게이트볼대회 개회식

이석화 청양군수 = 4일 오전 8시 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주간업무계획 보고회를 주재한 후, 오전 11시 30분 청양읍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되는 청양군노인회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회식에 참석

### 유관기관 방문

윤주역 청양교육장=4일 오전 10시부터 청양군청, 청양군의회 등 관내 유관기관을 방문.

# '복지박람회 · 주민자치 문화대전' 성료

## 태안군, 지난 1일 문화예술회관 야외 특설무대서 한상기 군수 등 1천여 명 참석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태안군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지난 1일 군 문화예술회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한상기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이용희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국회의원, 각급 기관 · 사회단체장, 사회복지 종사자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복나눔 복지박람회 & 주민자치 문화대전'이 열렸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한상기 태안군수, 민간위원장 김윤정)와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윤희신), 태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정일), 태안군주민자치연합회(회장 한석준)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의 사회복지 실천을 선도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읍 · 면 주민자치위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들에게 사회복지와 주민자치의 참 뜻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복지박람회와 함께 주민자치 발표회를 함께 개최하는 등 복지와 주민자치가 어우러지는 행사로 치러져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와 읍 · 면 주민자치 분야 유공자 등 총 47명이 표창을 받았으며, 태안어린이집 원생들의 합창과 소원풍선 날리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복지박람회에서는 49개 복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다둥이 가족 모여라') ▲시각장애 체험 ▲수어 체험 ▲풍선 및 네일아트 ▲한궁 체험 ▲꽃씨 나눔 등 총 60개의 부스가 운영됐으며,

각 읍 · 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비롯, 태안군 청소년 댄스동아리의 무대와 상무석사태권시범단의 태권무 공연, 태안군시각장애인협회의 사물놀이 등 멋진 공연이 이어져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군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해 처음 치러진 이번 행사가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복지 및 주민자치 행사를 추진해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상기 군수는 "오늘 행사는 복지와 주민이 함께 하는 연합 행사로 치러져 군민이 함께 공감하고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등 큰 의미가 있었다"며 "군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읍 · 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힘써 행복한 군민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 우수 정책사례 전국에 알려

## 당진시,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 대전 참가

4년 연속 일자리대상과 3년 연속 매니패스토 경진대회 수상하며 행정력을 인정받고 있는 당진시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 대전'에 참가해 우수 정책사례를 전국에 알렸다.

시가 참여한 대한민국 행정홍보 대전은 행정안전부와 문화일보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전국에서 모인 140여 자치단체가 참여해 각 지역의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다.

이번 홍보 대전에서 당진시정 홍보관을 마련한 시는 지난 8월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도 주목받았던 청년정책과 당진 어시장 상생 스토어로 상징되는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을 지역경제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최근 외국인 투자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기업들의 투자러시와 국제무역항으로 도약하고 있는 당진항, 지난 7월 25일 해양수산부와의 실시협약 체결로 중국 국영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는 왜목 마리나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특히 지역 현안과 갈등을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고 지역별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자치활동으로 이미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당진형 주민자치를 비롯해 당진형 3농 혁신과 시의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정책은 이번 행정홍보 대전에서 우수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밖에도 시는 우수정책 홍보에 그치지 않고 삽교호관광지 등 지역의 우수 관광자원과 해나루쌀을 위시한 대표 농산물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이 타 자치단체 부스를 돌며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당진=최근수기자

### 저소득 어르신댁 주거환경정비

#### 도고면, 구슬땀 흘리며 봉사활동 전개

아산시 도고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이용인)이 도고면 새마을회(회장 박희철 · 이명숙)와 함께 지난달 31일, 도고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 댁을 방문해 주거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주거환경정비는 87세의 고령으로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안 곳곳이 쓰레기로 가득해 건강악화가 우려된다는 마을 주민의 제보로 실시하게 됐다.

집안 가득 쌓여있는 쓰레기 수거와 바닥의 묶은 때 제거, 주방 청소, 화장실수리, 주변 잡초 제거 등에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식사준비, 청소와 말벗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방문간호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의 건강도 함께 챙길 예정이다.

이용인 단장은 "이번을 계기로 어르신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철, 이명숙 회장은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해 더불어 사는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생명의 소중함 민 · 관이 함께 캠페인 벌인다

## 당진시 보건소 · 당진시노인복지관 · 송산종합사회복지관 참여

당진시 보건소가 자살예방의 날(매년 9월 10일)을 맞아 오는 5일 지역사회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당진시 노인복지관과 송산종합사회복지관과 손잡고 민 · 관 협력 연합 캠페인을 벌인다.

보건소는 5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당진시내 구터미널 일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괜찮니?' 엽서 보내기와 생명 트리 만들기, 생명사랑 인식도 조사, 정신건강 OX 퀴즈 등을 진행한다.

같은 날 송산 사회복지관도 세한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친구에게 관심 가져주기 일환으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비롯해 가족사랑 안부 전하기 '잘 지내시죠?', 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당진시 노인복지관은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어르신 회원들을 대상으로 복지관 로비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자원봉사 내용을 전시하고 자살징후 알기 및 생명존중에 관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간기관에서 캠페인에 동참해 주셔서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자살예방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 보건소는 자살예방을 위해 10개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자살 고위험자 발굴 및 연계 위기관리,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을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 예방을 위해 관내 33개 생명사랑 업소를 지정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당진=최근수 기자

# 음봉면 행복키움 독거노인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아산시 음봉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이강수)은 지난달 31일, 음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희원)와 음봉면 내 독거노인세대에 대한 담장 보수를 실시했다.

대상자는 지난 집중호우 등으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로 낡고 오래 된 블록 담장이 무너진 저소득 독거노인가정인 최ㅇ분(83) 어르신으로 음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행복키움추진단)에 복지반장의 요청으로 실시하게 됐다.

인주면 에스와이페널(주)의 판넬, 영인면 천아스틸(주) 사각파이프를 후원받아 행복키움 추진단원 7명의 자원봉사 동참으로 담장보수를 진행했다.

이강수 단장은 "지역 내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신 업체에 감사를 드린다.아울러, 요즘 농번기에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행복키움 단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오늘과 같은 나눔들이 이웃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음봉 마을 만들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음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김희원 면장, 이강수 단장)은 "고령의 어르신 가정에 여러 기업체의 후원과 추진단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음봉면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음봉면 지역사회복장협의체에서는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희망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봉면은 지역사회 내의 여러 유관 기관들과 상호 협업을 통해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복지를 함께 증진해 나가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 청양군, 보충식품, 영양교육 · 상담 제공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지역 내 임산부와 영유아의 행복한 미래 건강을 위한 2017 영양플러스사업 하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영유아의 발육 · 성장,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미만의 임산부 및 출산 · 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다.

선정되는 대상자에게는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며 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 교육과 함께 영양상태 개선 평가도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 · 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산모수첩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의료원 1층 대사증후군관리실(940-4536)로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 신창면 새마을협의회 고구마 수확

아산시 신창면 새마을협의회(회장 박희성, 부녀회장 박연옥)는 지난 8월 31일 새마을 회원 40여명이 지난 4월부터 신창면 가덕리 일원의 휴경지에 심은 사랑의 고구마를 수확했다.

박희성, 박연옥 신창면 새마을협의회장은 "가뭄과 장마가 연속되는 날씨에도 실한 고구마를 잘 수확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에게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정식 면장은 "해마다 휴경지를 활용해 고구마를 재배하여 그 수익금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새마을협의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군민 학습역량 강화 '앞장'

## 태안군, '제2기 평생학습대학 개강식' 열려

'평생학습도시' 태안군이 하반기 평생학습대학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학습역량 강화에 나섰다.

태안군은 지난 1일 교육문화센터에서 한상기 군수와 18개 프로그램 수강 신청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태안군 평생학습대학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대학은 군민들에 대한 학습기회 확대와 학습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것으로, 군은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성인 410명을 대상으로 주간반과 야간반 총 18개 과정의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한다.

교육은 크게 자격증취득 · 전문가 과정, 교양과정, 학점 · 학력취득 과정으로 나뉘며 ▲한우리 독서지도사 ▲어르신 동화구연 3급 ▲약용식물자원관리사 ▲직장인 컴퓨터 실무 중급과정 ▲관광음식점 메뉴개발 ▲바리스타 2급 ▲인문학 ▲팝아트 ▲수채화 ▲이상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실시된다.

군은 교육문화센터가 평생학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읍 · 면 주민자치센터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과 교육을 연계하는 등 군 전역의 평생학습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강식에서는 한상기 군수의 격려사에 이어 국민인권위원회 오완호 교수의 특강 등이 실시돼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개강식에 참석한 한상기 군수는 "평생학습대학을 통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알차게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평생학습도시로서 군민들을 위한 행복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 청양군 부동산중개업소 전자계약 교육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달 30일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인중개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을 가졌다.

군은 지난 8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의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회원가입 절차, 계약서 작성 방법 등 실무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던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계약서 위변조 방지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이날 전자계약 교육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지난 2011년 청양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청양지회 간 체결한 귀농 · 귀촌인 중개수수료 감면 협약이행 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중개업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 계룡시 규제개혁 사례 교육 '눈길'

### 직원대상 적극행정 대한 공감대 형성 · 역량 강화 계기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1일 시청 회의실에서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2013년 규제개혁 유공자로 선정된 충청남도 윤여권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산업단지 규제개혁 및 기업지원 사례'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윤 주무관은 산업단지 내 업종 제한 지침 폐지 등 기업 애로 해소사례를 발표하며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창출을 위해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자세를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생활 속 규제와 지역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시민과 기업의 불편 · 부담 사례를 적극 발굴 ·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중소기업 · 소상공인 애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 등 다양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지방세 징수기동팀 체납자 꼼짝마

### 부여군, 체납액 징수목표액 85%, 8억6400만원 징수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의 초과 달성과 올해 미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징수기동팀을 편성,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9억 7300만원)의 85% 수준인 8억6400만원을 징수하여 연말까지 초과 달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재무과장을 총괄로 4개팀으로 구성된 기동팀은 특히, 그동안 체납처분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관외체납액 징수전담팀 운영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외 거주 체납자는 체납액 징수전담팀과 번호판 영치팀을 함께 운영하여, 9월~11월까지 매주 2회 이상 관외 체납자 및 체납차량 실운행자의 주소지, 직장, 사업장 등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번호판 영치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 21억9600만원 중 관외체납액은 561백만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만원 이상의 관외 고액 · 상습체납자는 63명이고, 관외 최고 체납액은 8천300만원에 달한다"며," 관외징수전담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관외체납액을 눈에 띄게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관내체납액에 대해서도 읍면전담팀과 고액체납전담팀을 성실히 운영하고 군과 읍면 간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은 물론 읍면 간 새로운 징수기법 공유로 꾸준히 관내체납액 징수율을 높여가기로 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여 성실납세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성실납세자로서의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펼쳐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원을 더욱 확충하고, 전군민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과 확산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부여=이정복기자

# 행복한 동행으로 따뜻한 성장 이뤄내자

### 황명선 논산시장, 9월중 월례회의 통해 '따뜻한 동고동락' 중요성 거듭 강조

황명선 논산시장은 1일 회의실에서 시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월례회의를 통해 시정유공자 및 시정발전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함께 축하 박수를 나눴다.

회의에 앞서 100세행복과 윤선미 행복배움팀장이 2017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선미 팀장은 '경로당의 새로운 변화, 우리 마을 문화&행복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따뜻한 공동체 동고동락 휴머니티 조성사업인 ▲홀몸어르신 공동생활제 ▲한글학교 ▲마을주민 건강관리사업 ▲찾아가는 문화공연 마실음악회 · 동고동락콘서트 등 복지서비스의 창의적 모델을 소개했다.

황시장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공동체 동고동락 휴머니티 사업은 헌법 제10조에 나오는 보통사람들의 행복을 위함"이라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논산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자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것인지,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시장은 "시민 여러분들께 드릴 좋은 추석선물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이 제일 좋은 선물인 것 같다"며, "끊임없는 소통하고 끊임없이 협력해 시민모두의 따뜻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풍성한 추석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충청남도 행복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마을로 선정된 채운면 야화1리와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및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논산지회가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또,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00세행복과장이 최우수상을, 사회적경제과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과 대한민국행정홍보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해병대전우회충남연합회 논산시지회 김호진씨 등 26명이 지역발전 유공으로 시장표창을 수상했다.

논산=이길구기자

## 계룡軍문화발전재단 제1회 임시이사회 열려

### 2017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실행예산 확정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이사장 최홍묵)은 지난달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7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재단 임원 및 축제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계룡軍문화축제 추진 상황 및 세부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축제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재단법인 계룡軍문화발전재단 정관개정(안) 2건 ▲2017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조사업 심의(안) 등을 심의 · 의결했다.

특히, 2020년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국제행사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 외 관계자들로부터 관심도가 집중 될 것으로 판단, ▲民 · 軍 합동프로그램 보완 · 확충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대폭 강화 ▲행사장 편의시설 보완 · 확충 ▲지역 역사 · 문화자원 고증을 통한 프로그램 구현 등 전반적인 행사 운용 여건을 고려한 실행 예산을 조정했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계룡軍문화축제는 2020년 개최 예정인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축제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등 기존과 다른 변화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홍묵 이사장은 "계룡군문화축제는 대한민국 컨텐츠 대상과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軍 관련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는 2020년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개최 당위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民?軍 및 유관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시점으로 모두가 고민하며 의견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7계룡軍문화축제는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육군의 지상군페스티벌(제15회)행사와 같이 계룡대 비상활주로와 계룡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부여군 세이브더칠드런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공모사업 선정

### 홍산면 북촌리 연면적 264㎡(약80평) 규모 총사업비 4억8천만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아동국제구호개발 NGO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의 농어촌아동지원사업인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부여군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의 제공은 물론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공모사업에 적극 나섰다.

공립형지역아동센터는 홍산면 북촌리에 연면적 264㎡(약80평) 규모로 총사업비 4억8천만원이 투입되어 건립될 예정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바르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2018년 상반기 내로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완공하여 2019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아동센터 건립과정에서 아동 및 지역주민이 설계에 참여하는 커뮤니티와 워크숍을 진행,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 설치와 센터 이름 또한 직접 선정하는 등 건축 및 운영의 모든 과정을 아동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센터 건축 및 놀이터 신축 후 지자체에 기부하는 지원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신축 후에도 2년 동안 운영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미래사회의 동력인 아동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지역의 비전도 세워지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며,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건강한 시민,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여=이정복기자

## 서천군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적정염도측정 · 영양관리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지난 8월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적정염도측정 및 영양관리교육을 실시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집단급식소로 많은 어르신들의 식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적정염도 및 만성질환영양관리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 염도 측정을 실시했다. 염도 측정결과 3개소 모두 적정염도(백숙0.3, 닭곰탕0.5, 열무물김치 0.9)로 측정됐다.

또한 조리 관계자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염조리법 및 저나트륨 실천법 교육을 실시했다.

저염조리법 및 저나트륨실천법은 ▲소금보다는 간장(양조)을 이용 ▲국물 간을 맞출때는 약간 식은 다음에 간을 맞추고 ▲생선요리 시 조림보다는 찜, 구이로 하며 ▲국물은 항상 육수를 이용 ▲소금 대신 향이 강한 천연재료(마늘,양파,식초,들기름,참기름 등)를 이용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건더기를 풍성하게 넣고 ▲적절한 양의 과일 · 견과류, 푸른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등 칼륨이 풍부한 식품 섭취 ▲국물 음식은 국물을 남긴다 등이다.

부여=이정복기자

## 천안시에 임대주택 9642세대 들어선다

### 공급규모가 민선6기 공약 2500세대 대비 약 4배 높아

천안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보급 사업은 ▲행복주택 · 공공임대아파트 2,930세대 ▲전세 · 매입임대주택 1,443세대 ▲민간임대아파트 1,653세대 ▲뉴스테이 임대아파트 3,266세대 등이 건설되고 있거나 공급확정됐다.

더불어 최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입장면 · 동면지역의 마을정비형 임대아파트 350세대 건설사업의 확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규모가 민선6기 공약인 '서민임대아파트 2,500세대 공급사업'의 공약 사업량보다 약 4배인 9,642세대에 이른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18년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동면과 입장면에 35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건설계획이 선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읍 · 면 지역의 저소득층 근로자들까지 공공임대주택 보급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2018년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취약한 지역의 마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국민 · 영구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사업이다.

시와 LH공사가 비용을 분담하는 협약사업으로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춰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 주민들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타 도심지로 이탈을 방지하고 일대 산업단지 근로자의 현지 정착 주거여건이 마련돼 읍 · 면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 동 정

#### 간부회의

구본영 천안시장= 4일 오전 11시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05회 임시회 폐회에 참석하고 오후 4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 간부회의

노박래 서천군수= 4일 오전 8시 30분 회의실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 개회식

이용우 부여군수= 4일 오전11시 부여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2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

## 논산시립도서관 건립 '첫삽'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일 지산동 문화시설지구 도서관 건립부지 현장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도 · 시의원, 박범신 작가,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시립도서관 기공식을 가졌다.

총 사업비 98억원, 연면적 3,293㎡,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논산시립도서관은 북카페,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 열람실, 평생교육 강의실 등 도서관 업무 및 정보, 문화, 교육, 소통이 이뤄지는 개방형 복합문화 공간과 평생교육이 가능한 평생학습 융복합 공간으로 건립된다.

도서관 건물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설계공모를 통해 한글을 형상화한 랜드마크적인 디자인 작품을 선정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과 녹색건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축물로 2018년 12월 준공, 201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논산시립도서관은 단순한 책의 보관과 이용단계를 넘어 정보 · 문화 · 교육 · 소통이 이뤄지는 다목적 공공복합문화공간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 복지를 향상시켜 평생학습 활성화의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립도서관이 건립되면 시민들의 정보이용과 문화 ·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논산시민공원, 건강관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논산시문화원 등 공원과 공공시설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주변의 풍부한 녹지공간 등이 어우러진 다목적 공공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산=김태선기자

## 동 정

### 주간업무보고회의 주재

오시덕 공주시장= 4일 오전 8시 30분 중회의실에서 주간업무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5시 공주산림휴양마을에서 열리는 직원과의 허심탄회 대화마당에 참석.

### 민관협치 협업교육

김동일 보령시장 = 4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주간현안 보고, 오후 2시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지방분권 및 민관협치 협업교육 참석.

### 중왕2리 마을 표지석 제막식

이완섭 서산시장= 4일 오전 11시 중왕2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지곡면 중왕2리 마을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 오후 3시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시정발전유공시민 시상식에 참석, 오후 5시 30분 국민은행 서산지점 이전 개소식에 참석. 오후 6시 40분 폰타나 리조트에서 열리는 2017 직거래장터 활성화 교육에 참석.

### 교직원수련원 공사현장 방문

조민행 보령교육장= 4일 오전 10시부터 제29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으로 광명초등학교, 교직원수련원 공사현장에 방문.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발 벗고 나서

## 공주시 유구읍, 맞춤형복지사업 일환 집수리 실시

공주시 유구읍(읍장 김창수)은 지난 8월 30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주거취약계층인 유구읍 세동리 이 모(56 · 장애인)씨의 가정을 방문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 씨의 가정은 주택 내부 화장실 및 보일러 교체, 내부 환경정비 등이 꼭 필요했던 장애인 가구지만, 집수리 비용이 1천만원이 넘게 소요되는 등 그동안 집을 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뇌졸중환자인 어머니와 장애인인 딸 모두 거동이 불편해 집 밖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요강을 사용해 용변처리를 하면 요양보호사가 용변을 처리하는 등 요양보호사 없이는 혼자서 용변처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읍은 ㈜주거복지센터,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등과 물심양면으로 힘을 모아 수리비를 마련했으며, 단순인력이 필요한 부분에는 직원들이 직접 나서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다.

읍은 이번 집수리를 통해 모녀가 용변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세식 화장실을 건물 안에 설치했으며, 고장 난 화목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고 방과 화장실의 턱을 모두 없애 모녀가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김창수 유구읍장은 "민과 관이 힘을 합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협력기관과도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을 위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구읍 맞춤형복지전담팀은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지원 및 민간연계를 통해 대상가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 내년도에도 더욱 투명하고 쾌적해진다

### 대천해수욕장, 평가회 개최… 다양한 계절영업 개선시책 논의

올해 계절영업 공개추첨과 프리존 운영,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해 관광객 편의증진은 물론, 투명한 관광지로 확 달라진 대천해수욕장이 내년도에도 국민관광지에 걸맞은 최고의 피서환경으로 조성된다.

보령시는 지난달 31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계절영업 허가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평가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명품 해양관광 랜드마크인 대천해수욕장의 계절영업(물놀이 용품 대여업)의 다양한 개선시책 논의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올해 도입된 시책들의 전반적인 평가와 계절영업 허가자들의 건의 및 개선 요구사항, 문제점, 발전사항들을 논의했다.

계절영업은 공개 추첨을 통해 구역의 개인 토지 인식 전환과 임대?전매 차단장치 마련, 프리존 운영은 파라솔, 텐트 등 휴가용품을 구비해 온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카드결제 시스템은 튜브와 파라솔 등 대여료를 현금으로 꼭 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바가지 요금 징수 행위의 원천 차단으로 매우 호응이 높아 시는 내년도에도 지속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허가 구간별 허가면적의 협소 건의에 따른 면적 확대 ▲허가 대상자 격년제 순환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 ▲노후된 계절영업 시설물을 개선할 경우 일부 지원 방안 마련 ▲2인 1조의 구역별 허가자 배치로 허가자 간 상호협력 강화 ▲협정요금 옥외게시제에서 확대된 대여물품별 가격(라벨) 표시제 도입 등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계절영업 허가 위반자에 대한 '허가정지' 처분을 최초로 이행하는 등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원칙 행정으로 상인들에게는 개선을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받았다.

김동일 시장은 "국민관광지 대천해수욕장이 다양한 컨텐츠 확충은 물론, 편의시설 대폭 개선으로 매년 여름철 1000만 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며 환황해권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며, "내년에도 신 해양시대를 맞아 더욱 명품 해수욕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보령시, 평생학습도시 지정 염원 담는다..서포터즈 발족

보령시는 1일 보령문화의전당 소강당에서 김동일 시장과 평생교육강사, 학습매니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지역 평생교육 추진기반과 네트워크 강화로 교육부 지정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권역?분야별 맞춤형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이 언제?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발대식은 평생학습도시 추진 및 비전 보고,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했고, 이후 평생교육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이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에 발족된 서포터즈는 앞으로 일상 속 학습 개선사항 발굴 건의 등 평생학습 모니터 역할 수행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교육부 공모에 발전적 의견 제시 ▲도서벽지 등 사각지대 학습 활성화 유도, 평생학습도시 분위기 확산 ▲평생교육 강사, 동아리, 학습매니저 등과 긴밀한 학습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굳건한 의지, 활발한 참여, 이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지원은 필수이다"며, "이번 서포터즈 발족이 우리 시의 평생학습현장의 균형적 발전과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 우/리/동/네

# 불합리한 규제 기업 목소리 청취

### 서산시, 지역 150여개 업체 설문조사 실시

서산시가 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란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제도나 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제한 등 시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및 법령상의 제한 행위이다.

이 설문조사는 기업 경영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업종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추출된 지역 1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규제개혁 인식, 체감도 등 4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설문지를 우편을 통해 발송될 예정이다.

작성된 설문지는 이달 15일까지 동봉된 회신 봉투나 메일,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를 관계 부처 및 업무 담당자와 협의 후 현실과 현장에 맞게 개선해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 속의 작은 불편함도 귀담아들어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 홍미진진 공주시민대학 제5기 전문특성화과정 개강

# 지역 리더 육성 · 시민 문화 선도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시민들의 지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 리더 육성 및 시민문화를 선도하고자 지난 31일 고마에서 홍미진진 공주시민대학 제5기 전문특성화과정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공주시민대학 전문특성화과정은 상반기에 이어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청해 지역혁신리더과정과 시민문화선도과정의 2개 분야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지역의 역사와 문화, 유적지 등을 바로 알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지역의 리더를 육성, 시민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전공분야의 심도 있는 강의와 역사 유적지 탐방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강의주제는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 만들기, 행복한 공주를 위한 관계 맺기, 살아있는 박물관 공주,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 역발상으로 다시 역발상 하라,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도시 공주 등 평생학습도시의 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기 위한 내용들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시는 시민, 사회단체 회원, 공무원 등 각계각층에서 수강생을 모집해 과정별 45명씩을 선발했으며, 매주 목요일 고마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오시덕 시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시민대학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고 지혜를 배우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알찬 강의를 준비했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식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 구성애 대표 초청 시민아카데미 개최

서산시가 5일 시 문화회관에서 성교육전문가 구성애 대표를 초청해 제48회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 대표는 '자녀지도를 위한 성교육과 부부의 성'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건전한 성가치관과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 및 부부의 성 고민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구 대표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푸른아우성대표,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EBS 부모 60분, KBS 아침마당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특유의 유쾌한 입담과 진솔한 이야기로 건강한 성에 대해 강연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구성애의 성교육 ▲유아 성교육 ▲니 잘못이 아니야 ▲내 성은 건강해 등 다수가 있다.

서산 시민아카데미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음 강좌는 다음달 31일 가수 겸 탤런트인 김성환씨를 초청해 '즐거운 삶,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산=김정한기자

#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활동 적극 동참

### 대전 개인택시 금산향우회 인삼엑스포 홍보단 발대식 개최

대전 개인택시 금산향우회(회장 길호영)가 오는 9월 개최하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대전 개인택시 금산향우회는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서 대전 개인택시 금산향우회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활동에 일조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엑스포 조직위원회 김시형 사무총장이 참석해 대전 개인택시 금산향우회원을 한 명 한 명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해 인삼엑스포의 사전 붐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지난 8월부터 대전 개인택시 금산향우회 회원들은 홍보티셔츠를 착용하고 100여대의 차량에 차량용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대전권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벌여왔다.

길호영 향우회장은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금산인으로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2일간 '생명의 뿌리, 인삼(부제 : 과학과 문화로 세계를 날다)'을 주제로 충남 금산군 인삼엑스포광장 일원에서 전시, 이벤트, 교역, 학술회의, 경연대회, 체험행사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금산=전정만기자

### 금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 중개업자 시스템 교육

# 금산군 부동산거래 투명성 확보

금산군은 2017년 8월 1일부터 종이 계약서 없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 토지등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신고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간단하고 편리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산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산군지회 소속 공인중개사와 함께 8월 31일 금산군 여성창의문화센터(청산회관)에서 시스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금산=전정만기자

광고문의 : 042-538-1603
홈페이지 — http://www.daejeontoday.com

## 오늘의 하이라이트

### ▲ 꽃피어라 달순아 (KBS2 오전 9시00분)

달순(홍아름)은 구두를 만들며 구미녀라는 별명으로 지내고 있고, 홍주(윤다영)는 촉망받는 미대생으로 장관 아들인 동훈과 연애하며 어릴 적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다. 윤재(송원석)는 의사가 되어 변두리 보건지소에서 일할 계획이고, 현도(강다빈)는 한강피혁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분이네는 정옥을 찾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는데..

### ▲달콤한 원수 (SBS 오전 8시 30분)

달님은 재욱에게 프로포즈를 받지만 망설이고 재욱은 그런 달님에게 기다리겠다 말한다. 이란은 재욱이 자신의 딸을 죽인 달님에게 프로포즈한 사실을 알고 분노해 다투고 유경에게 딸을 빨리 찾아달라고 한다. 달님은 청소부로 알던 할머니가 실은 회장이었단 걸 알고 놀란다. 한편, 세나는 개발팀직원들을 선동해 달님의 신제품개발 무효를 주장하며 보이콧을 하는데...

### ▲ 왕은 사랑한다 (MBC 오후 10시00분)

린(홍종현)은 은영백(이기영)의 죽음으로 망연자실한 산(윤아)을 지키기 위해 원(임시완)과 충돌하고, 은영백의 죽음을 조사하던 원은 믿고 싶지 않은 증거와 마주하게 된다. 한편, 원성(장영남)은 린을 모시는 자들의 존재를 알아내고...

## 케이블 명화

### ▲ 군도:민란의 시대 (OCN 오후 4시00분)

군도, 백성을 구하라!

양반과 탐관오리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던 조선 철종 13년. 힘 없는 백성의 편이 되어 세상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적떼인 군도(群盜), 지리산 추설이 있었다. 억압에 맞서 떨쳐 일어서는 민초들의 대표격으로 의적인 '군도'가 있고, 그 반대편에 탄압하는 관과 탐관오리들이 있다.

쌍칼 도치 vs 백성의 적 조윤

잦은 자연재해, 기근과 관의 횡포까지 겹쳐 백성들의 삶이 날로 피폐해 져 가는 사이,

나주 대부호의 서자로 조선 최고의 무관 출신인 조윤은 극악한 수법으로 양민들을 수탈, 삼남지방 최고의 대부호로 성장한다. 한편 소, 돼지를 잡아 근근이 살아가던 천한 백정 돌무치는

죽어도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을 당한 뒤 군도에 합류. 지리산 추설의 신 거성(新 巨星) 도치로 거듭난다.

뭉치면 백성, 흩어지면 도적! 망할 세상을 뒤집기 위해, 백성이 주인인 새 세상을 향해 도치를 필두로 한 군도는 백성의 적, 조윤과 한 판 승부를 시작하는데...

### ▲데몰리션 (채널CGV 오후 10시30분)

"슬프게도… 그녀가 죽었는데 괴롭거나 속상하지도 않아요"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성공한 투자분석가 데이비스(제이크 질렌할) 다음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그를 보고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데이비스는 점차 무너져간다

"편지 보고 울었어요, 얘기할 사람은 있나요?"

아내를 잃은 날, 망가진 병원 자판기에 돈을 잃은 데이비스는 항의 편지에 누구에게도 말 못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어느 새벽 2시, 고객센터 직원 캐런(나오미 왓츠)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뭔가를 고치려면 전부 분해한 다음 중요한 게 뭔지 알아내야 돼"

캐런과 그의 아들 크리스(유다 르위스)를 만나면서부터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마음 가는 대로 도시를 헤매던 데이비스는 마치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망가진 냉장고와 컴퓨터 등을 조각조각 분해하기 시작하고, 끝내 아내와의 추억이 남아있는 집을 분해하기로 하는데…

##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60-398-3355

### 영화 · 오락

◈ OCN
5:10 더록
7:30 기술자들
9:50 CSI 시즌15
10:40 CSI 시즌15
12:40 구해줘
13:50 투모로우랜드
16:30 군도:민란의 시대
19:20 배틀쉽
22:00 맨프롬U.N.C.L.E.(2015)

◈ 채널 CGV
3:20 그랜 토리노
5:20 더 콜(2013)
7:10 프리윌리3
8:40 쿵푸팬더3
10:40 탐정:더 비기닝
12:50 파파로티
15:10 더블 타겟
17:40 엑스더스:신들과 왕들
20:30 그래비티
22:30 데몰리션

◈ Mnet
6:10 눈덩이 프로젝트
7:10 프로듀스101 시즌2 Special Clip
8:00 Mnet SHOW ME THE MONEY 6
10:10 내 사람친구의 연애
11:30 아이돌학교
13:00 MPD Music Talk (SNS/메신저)
13:50 Mnet SHOW ME THE MONEY 6
16:30 눈덩이 프로젝트
17:30 M COUNTDOWN
19:30 Live on M(SMS)
20:20 아이돌학교
21:50 Mnet SHOW ME THE MONEY 6

### 스포츠 · 레져

◈ MBC 스포츠플러스
10:00 2017 메이저리그
12:00 제9회 전국생활체육 대 장사씨름대회 하이라이트
14:00 2017 메이저리그
16:00 불멸의 명승부
17:30 코리안 메이저리거 투데이
18:00 2017 KBO 퓨처스리그
21:00 야구 중심
22:00 <당구스페셜>2017 포르투 3쿠션 당구월드컵 준결승 · 결승

◈ SBS 스포츠
9:00 17-1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0:58 17-18 EPL 주간 핫 매치
12:12 2017 양궁 월드컵 1차 리커브 하이라이트
14:07 2017 월드그랑프리 여자배구
15:33 2014 구리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
16:43 17-18 EPL 하이라이트
17:44 2017 KBO리그 KIA 명승부 BEST
18:50 주간야구
20:16 2017 베이스볼S 다이제스트

◈ 온스타일
6:00 하백의 신부
8:25 바디 액츄얼리
9:15 아담의 팩트폭격
9:40 뜨거운 사이다
11:00 섬총사
12:30 까칠남녀
13:15 바디 액츄얼리
14:10 원나잇푸드트립:먹방레이스
16:35 SNL 코리아9
18:00 매력티비
18:35 까칠남녀
19:20 바디 액츄얼리
20:10 아담의 팩트폭격
21:30 바디 액츄얼리
22:15 까칠남녀

### 뉴스 · 다큐

◈ YTN
8:00 이슈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율의 시사탕탕
21:00 뉴스만만
22:00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 한국경제TV
6: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00 출발! 증시830
10:00 증시라인 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라인 13
15:30 부자 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N
17:00 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 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장외주식 사구팔구
20:30 대박천국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아침, 메디컬365
11:00 <세계 테마 기행>지중해의 푸른전설, 몰타 - 1부/2부
12:30 <세계 테마 기행>지중해의 푸른전설, 몰타 - 3부/4부
14:00 <잃어버린 아프리카의 낙원, 고릉고사>5부 - 위험한공존
15:00 <잃어버린 아프리카의 낙원, 고릉고사>6부 - 사자의 포효
16:00 개코원숭이의 여왕
17:00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
17:30 TV 동물농장
18:45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
19:15 <와일드 옐로스톤>1부-늑대의 겨울

### 음악 · 애니

◈ MBC 뮤직
7:50 Good Morning MBC MUSIC
9:00 나 혼자산다
10:35 아이돌TV
11:30 Show Champion
13:0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14:25 무한도전
16:00 쇼! 음악중심
17:10 순위의 재구성
18:40 더보이즈 꽃미남 분식집 우리는 영업중

◈ 애니맥스
7:00 넥소나이츠시즌3
8:00 지오메카 비스트 가디언
9:00 레인보우 루비
10:0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11:00 꼬마버스 타요4
12:00 아울은 너무 이상해
13:00 안녕 자두야
14:00 헬로카봇 5
15:00 파파독
16:00 안녕! 괴발개발
17:00 터닝메카드W 시즌2
18:00 아울은 너무 이상해

◈ JTI 재능방송
6:00 퍼피구조대
7:00 넥소나이츠S3
8:00 지오메카 비스트가디언
9:00 파워캐치 완다Part 2
10:00 텔레몬스터
11:00 꼬마버스 타요3
12:00 라바 시즌3
13: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14:00 유희왕ARC-V
15:00 애슬론 또봇 3
16:00 소피루비
17:00 안녕! 보노보노
18:00 터닝메카드W 시즌2
19:00 마음의 소리

##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MBC 220-2348~9▶TJB 281-1101▶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1 | KBS2 | MBC | | TJB/SBS | CMB | EBS |
|---|---|---|---|---|---|---|
| 6:00 KBS 뉴스광장<br>7:50 인간극장<br>8:25 아침마당<br>9:30 KBS뉴스<br>10:00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br>10: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br>11:40 코리언 지오그래픽플러스<br>12:00 KBS뉴스 12<br>12:30 영상앨범 산<br>1: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br>1:50 2017 평창대관령 음악제<br>3:5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br>4:50 팔도밥상 스페셜<br>5:00 KBS 뉴스 5 (수화방송)<br>5:30 동물의 세계<br>6:00 6시 내고향<br>6: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br>7:00 KBS 뉴스 7<br>7:35 우리말 겨루기<br>8: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br>9:00 KBS 뉴스 9<br>9:40 가요무대<br>10:40 제44회 한국방송대상 대상 수상작 임진왜란 1592<br>11:00 KBS 뉴스라인<br>11:40 이웃집 찰스 |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br>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br>8: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br>9:00 TV소설 그여자의 바다<br>9:40 여유만만<br>10:50 지구촌 뉴스<br>11:00 살림하는 남자들<br>12:00 학교 2017<br>2:00 영화가 좋다<br>2:10 자동공부책상 위키2<br>3:00 TV유치원<br>3:50 여유만만<br>5:00 VJ 특공대<br>6:00 KBS경제타임<br>6:30 2TV생생정보<br>7:50 이름없는 여자<br>8:30 글로벌 24<br>8:55제보자들<br>10:00 학교 2017<br>11: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 6:00 MBC 뉴스투데이<br>7:20 오늘 플러스<br>7:50 훈장 오순남<br>8:30 생방송 오늘 아침<br>9:00 MBC 생활뉴스<br>9:55 중계방송 국회대표연설<br>10:40 기분 좋은 날<br>11:45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스페셜<br>12:00 MBC정오 뉴스<br>12:20 문화사색<br>1: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2<br>1:55 드림 주니어스페셜<br>2:25 지오메카<br>2:55 꾸러기 식사교실<br>3:25 텔레몬스터<br>3:35 이불 밖은 위험해 스페셜<br>5:00 MBC 뉴스<br>5:40 왕은 사랑한다<br>6:10 생방송 오늘 저녁<br>7:15 돌아온 복단지<br>7:50 MBC뉴스데스크<br>8:55 [UHD]별별며느리<br>10:00 왕은 사랑한다<br>11:10 이불 밖은 위험해 | 6<br>7<br>8<br>9<br>10<br>11<br>12<br>1<br>2<br>3<br>4<br>5<br>6<br>7<br>8<br>9<br>10<br>11 | 6:00 모닝와이드<br>8:30 달콤한 원수<br>9:10 좋은 아침<br>10:10 중계방송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br>10:45 SBS 생활경제<br>11:00 꾸러기 탐구생활<br>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br>12:00 SBS 12뉴스<br>12:5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br>2:00 뉴스브리핑<br>4: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br>5:00 SBS 오뉴스<br>6:10 조작<br>6:45 생방송투데이<br>8:00 SBS8뉴스<br>8:55 생활의 달인<br>10:00 조작<br>11:10 동상이몽2 너는내운명 | 6:00 충청남도 영상소식<br>6:2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br>6:30 메디컬 인<br>7:00 은혜로운 말씀<br>7:30 열린미디어 시청자세상<br>8:00 섹션뉴스<br>8:30 풋볼 클리닉<br>9:00 행복비나리<br>10:00 김영진의 집대성<br>11:00 제4차 산업혁과 글로벌기업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우리의 대응전략<br>12:00 굿뉴스<br>12:50 시청자뉴스<br>1:20 김경란교수의 부모교육<br>1:30 CMB 집중토론<br>2:00 가고 보고 먹고<br>3:00 굿뉴스<br>4:00 잘먹 GO 잘 살GO<br>4:30 건강 플러스<br>5:00 제4차 산업혁과 글로벌기업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우리의 대응전략<br>6:00 뉴스와이드<br>7:00 시청자뉴스<br>7:30 메디컬 인<br>8:00 집중토론<br>9:30 뉴스와이드<br>10:30 잠시 쉬어요, 스마트폰<br>11:00 요리사가 차리는 인문학 밥상 | 6:10 EBS 특별기획 통찰<br>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br>7:30 로보카 폴리<br>7:45 뽀롱뽀롱 뽀로로<br>8:00 딩동댕 유치원<br>8:30 놀이터 구조대, 뽀잉<br>8:45 코코코 다코<br>9:00 캐니멀<br>9:30 원더볼즈<br>9:40 라이브 토크 부모<br>10:30 최고의 요리비결<br>11:00 세계테마기행<br>11:40 한국기행<br>12:00 EBS 정오 뉴스<br>12:10 시대공감<br>12:40 지식채널 e<br>13:40 즐거운수학 EBS MATH<br>13:50 원더볼즈<br>14:00 미술탐험대<br>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br>15:00 모피와 친구들<br>15:10 세계사 시간여행<br>15:35 꼬마기사 마이크<br>15:50 으랏차차 아이쿠<br>16:00 캐니멀<br>16:45 딩동댕 유치원<br>16:50 빵빵 요리버스<br>17:05 딩동댕 유치원<br>17:30 로보카 폴리<br>17:45 뽀롱뽀롱 뽀로로<br>18:00 톡! 톡! 보니 하니1<br>18:05 플라워링 하트<br>18:20 톡! 톡! 보니 하니2<br>18:25 두키 팀험대<br>18:40 톡! 톡! 보니 하니3<br>18:45 똑똑! 우리 몸X파일<br>18:55 톡! 톡! 보니 하니4<br>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br>19:30 EBS 뉴스<br>19:50 다문화고부 열전 스페셜<br>20:40 다큐오늘<br>20:50 세계 테마 기행 |

# 대전대 정구부 '전국대학정구 추계 연맹전' 우수한 성적

### 개인 복식 우승과 개인단식 및 단체전 3위 각각 차지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정구부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안성 국제정구장에서 개최한 '2017년도 전국대학정구추계연맹전 겸 일본 · 대만 · 필리핀 초청대회'에서 개인 복식 우승과 개인단식 및 단체전 3위를 각각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대학정구연맹이 주최하고 안성시정구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아시아 3개국에서 온 정구부도 함께 경기를 치르는 등 의미있는 대회가 진행됐다.

대전대학교에서는 개인복식에 나선 사회체육학과 4학년 김재빈(23), 송민호(23) 학생이 강원대학교를 4:2로 제압하고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아울러 개인단식에 나선 사회체육학과 2학년인 조덕원(21) 학생이 동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단체전에서도 3위를 기록하며 체육 효자종목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지난달 5월 개최한 '제 95회 동아일보기전국정구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기록한 바 있는 대전대 정구부는 지난 7월에는 '제55회 대통령기전국정국대회'에서도 단체전 3위를 기록하는 등, 이번 전국대학정구추계연맹전까지 포함 연속 메달 획득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됐다.

이들의 이러한 실력 향상에는 정구부 조흥석 감독의 남다른 리더십과 훈련법이 한몫을 했다.

이정복기자

# 아산시, 공공도서관에서 가족여행 · 힐링 콘서트

아산시립탕정온샘도서관(관장 권경자)은 '문화가 있는 날, 공공도서관으로 떠나는 가족여행, 가족힐링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가족힐링콘서트는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를 서정적인 음악과 관객들이 참여한 다양한 악기연주를 통해 음악극으로 만들고,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사랑과 소통을 느끼기 위한 것으로, 참여한 가족들은 행사 내내 즐거움과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등 힐링의 진수를 맛봤다.

이번에 진행된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공공도서관에서 가족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독서, 문화프로그램 기획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아산=리량주기자

# 세한대 요트팀, 중국 '원동 컵' 국제 범선 원거리 대회 참가

### 오는 15일, 세한대학교 대한민국 대표해 참가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 요트팀이 오는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청도시에서 열리는 2017 '원동컵' 국제 범선 원거리 대회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참가한다.

'원동 컵'은 중국 청도시 중대 국제범선 경기 행사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 목포시 요트협회와 중국 청도시 범선협회가 주관하며 전라남도와 목포시 및 세한대학교가 2016년부터 후원해 왔다.

이를 통해 목포시는 청도시 간 협약을 맺어 환황해권 요트 항로 확보, 해양레저산업과 스포츠 활성화 증대 및 양국가간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체육, 관광, 문화교류를 지속하면서 활발한 민간 외교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원동 컵 국제 범선 원거리 대회는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 최미순(목포시 요트협회장) 교수를 단장으로 해양레저학과 이영오 교수 포함 8명의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구성된 세한대학교 요트팀은 중국 청도에서 출항한 후 목포와 흑산도를 거쳐 청도로 복귀하는 코스를 중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요트 선진 국가와 치열한 경기를 치르게 되며, 지난해 세한대학교 팀은 여러 참여팀 중 스페셜상 받아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받은 바가 있다.

또한 세한대학교는 중국 청화대, 청도대, 청도 과학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화된 해양 레저 스포츠 및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선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친선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양 레저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70주년 기념 '평화 · 통일 마라톤대회'

### 대전YMCA, 21번째 유아들이 그리는 평화 · 통일 마라톤대회

올해로 70주년를 맞이한 대전YMCA는 1947년 창립 후 지난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과 평화를 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유아들이 그리는 평화 · 통일 마라톤대회가 21번째 대회를 맞아 대전YMCA 아기스포츠단과 대전관내에 있는 보물섬, 선영, 아해뜰, 애플키즈 어린이집 5개 기관 4세~7세 유아들 그리고 각 기관의 선생님과 부모들등 500여명이 모여 평화를 꿈꾸고 평화 · 통일을 염원하며 함께 진행됐다.

송병배기자

EN.F Total Interior Design 엔.에프 대표 손혁건 Mobile 010-8422-6946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봉사의 집 급식봉사 펼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김동원 총재를 비롯한 지구집행부 일동은 지난 2일 문화동에 위치한 라이온스 봉사의 집에서 지역이웃을 위한 급식봉사를 가졌다.

**당진시 석문면농촌지도자회, 환경정화 활동** 당진시 석문면농촌지도자회(회장김재용)회원 40여 명은 지난1일 석문농협 RPC주변 들녘에서 방치된 빈 농약병과 농약봉지, 폐비닐, 플라스틱을 수거하는등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고덕면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6·25 참전용사 및 노인회 위안행사** 고덕면바르게살기위원회(회장김종길)가 31일 6·25 참전용사 및 노인회원 120여 명을 초청해 광명 일원으로 선진지견학을 가는 위안행사를 가졌다.

**대전시 피구연맹, 어머니피구클럽 창단식 가져** 대전광역시 피구연맹(회장김주석)은 2일 오전 9시30분 대전동광초등학교에서 황인호 시의원, 송유영 법률자문 변호사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어머니피구클럽 창단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2018학년도 2년제학위과정 입학설명회**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학장이인호)는 9월1일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온양제일호텔, 케냐 초등생 학습기자재 후원** 온양제일호텔(대표이사 한형수)이 1일, 아산시와 우호협력도시인 아프리카 케냐 키수무 초등학교에 학용품 및 축구공 등의 학습기자재를 아산시에 전달했다.

### 해나루 시민학교 초·중·고 과정 1기 졸업생 민은숙 씨

# 제11호 당진 당찬 사람, 늦깎이 대학생 선정

넉넉지 못한 가정의 장녀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의 고생을 딛고 황혼의 나이에도 배움의 길을 계속해서 닦아나가고 있는 민은숙 씨(64세)가 당진시로부터 제11호 당찬 사람들로 선정됐다.

주인공 민은숙 씨는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5학년,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 뒷바라지를 시작해야만 했던 인물이다.

그녀는 친구들이 학교에 갈 때 아이스크림 장사도하고, 버스 안내양으로도 일하며 병든 아버지의 병시중을 들며 젊은 날을 바쳐야만 했다.

버스 안내양 시절에는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이 날아들었지만 몸에 좋다는 뱀까지 잡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녀의 지극정성으로 39년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황혼을 바라볼 때쯤 알게 된 해나루 시민학교에서 그녀는 1기로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잇달아 합격하며 해나루 시민학교의 스타이자 늦깎이 학생들이 닮고 싶은 이정표가 됐다.

지금은 세한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복지학을 전공하며 배움의 길을 계속해서 닦아가고 있는 그녀의 꿈은 해나루 시민학교의 교훈처럼 배워서 남 주는 것,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학업뿐만 아니라 봉사에도 열심히 매진해 지난 2014년 2분기 당진시 봉사왕으로도 선정됐던 그녀의 당찬 스토리는 당진시 공식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2월 졸업생 박현우 씨 최종 합격

# 제52회 공인회계사 합격자 배출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경상대학 경영회계학과 졸업생 박현우(사진)씨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2017년 2월에 졸업한 박현우 씨는 지난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박 씨는 "한밭대 경상대학 심화학습실인 한현재(韓賢齋)에서 공부하며 합격의 결실을 얻었다."며 "저와 가족 뿐만 아니라 모교인 한밭대에도 큰 기쁨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꾸준한 공부와 성실함으로 전문가 더욱 성장해 회계 관련 업계의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한밭대 경상대학에서는 박현우 씨처럼 학생들의 전문자격시험이나 국가고시 등에 도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이준우 학과장(교수)은 "심화학습실(한현재)은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시험이나 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라며, "특히 전문자격 취득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장학금과 학원수강료 지원, 집중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 "학교를 가꾸는 사람들" 출간

### 김기찬 한서대 교수, 12년의 교육현장 책으로 출간

김기찬 한서대 교수가 서산 서령고 교장으로 재직한 12년 간의 학교 교육현장을 기록한 '학교를 가꾸는 사람들' 책을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사교육과 과열된 입시경쟁 그리고 학생을 위한, 학생 개인의 특기를 이끌어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등 현실에서 하나의 시사점을 던지며 모범사례가 될 서령고등의 교육현장이 담겨 있다.

서령고 출신인 김 교수는 1977년에 첫 교사발령 직후 모교인 임중호 교장으로부터 전근 제의와 설득으로 서령고 교사가 됐다.

그는 교원 인사채용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교직원 상조회를 구성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 오다 "2000년에는 모교의 교장이 되어 본격적인 학교발전을 이끌었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교장이 그는 '일등생보다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학교가 해야 할 참된 역할, 일등생보다는 미래에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할 유일한 한 사람으로 만들자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 온 교직자이다.

결국 서령고는 골든베러, 전국적 강팀인 카누부,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등을 배출하는데 항상 김 교장이 코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2011년 명예롭게 퇴임한 김 교수는 신지식학교 선정, 전국 최우수교 선정, 지역 명문고 선정, 중국 합비1중과의 오랜 교류 등 많은 업적을 남겨 서령고의 역사를 세운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서령고의 업적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힘을 합쳐 학교를 이끈 수많은 학교 관계자들의 덕으로 돌리는 겸손한 인물로 소문이 자자하다. 이 책을 통해 김 교수는 서령고와 함께한 자신의 역사를 담음으로써 잊히고 사라져가는 참된 교육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며 후학들이 이 길을 본받아 참교육의 장으로 향하라고 적고 있다.

김 교수가 전해주는 참교육의 장, 서령고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교육자의 행로와 참된 교육의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서산=김정한기자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 아산폴리텍대, 하나마이크론 주식회사 재직자 76명 대상

# 자동화제어 사업주위탁훈련 실시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윤기설)는 지난달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나마이크론 주식회사 재직자 76명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제어분야 4개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업주가 요구하는 기업맞춤형 교육으로 반도체회사인 하나마이크론 주식회사의 재직자들의 업무능률 향상 및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에 위탁해 메카트로닉스과와 반도체디스플레이과에서 진행하며 PLC 센서활용, 전기공압제어, PLC 모터제어, 기초회로측정실무 4개과정으로 3일 24시간씩 이루어지고 있다.

손형도 산학협력처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에서 더 많은 직원에게 더 많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맥키스컴퍼니 '대통령표창' 수상

산소소주 O2린(오투린)을 생산하는 충청권 주류 대표기업 맥키스컴퍼니(옛 선양/회장 조웅래)는 지난 1일 진행된 '제 23회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맥키스컴퍼니는 통계청(청장 황수경)에서 주관하는 통계조사와 매월 전자통계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고, 계족산 14.5km 황톳길 조성, 에코힐링 캠페인, 숲속음악회, 찾아가는 힐링음악회 등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을 10년이 넘게 이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맥키스컴퍼니는 2006년 대전 계족산에 14.5km 황톳길을 조성하고 맨발축제, 맨발걷기, 숲속음악회 등 다양한 에코힐링 캠페인을 전개해 국민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수년간 기여하고 있다. 연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황톳길은 전국에서 최고의 맨발트레킹 코스로 손꼽히며 한국관광공사에서 뽑은 '한국관광 100선'에 연속 선정됐고 올해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추천으로 '걷기 여행길 10선'에도 선정됐다. 또한 최근 맨발걷기효능에 대해 전국방송되면서 맨발걷기 성지인 계족산 황톳길이 집중 조명되기도 했다.

맥키스컴퍼니 박근태 사장은 "급변하는 주류시장 환경에서 정확한 시장 동향 파악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통계 분석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또한 통계청에서 당사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높이 평가해주어 감사하고 상생협력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송병배기자

## 동정

### 9월 정례회의

한재득 대전시새마을회장 = 4일 오전 11시 대전시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시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정례회의를 주관.

### 정례회의

임동규 충청남도새마을회장 = 4일 오전 11시 청양군지회에서 시군지회장 정례회의를 주관

### 정례회의

김진수 새마을문고충청남도지부회장 = 4일 오전 11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개최하는 시도문고회장 정례회의에 참석.

### 유재원 한국영상대 총장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한국영상대학교 유재원 총장이 지난 8월 31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선정식'에서 인재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JTBC,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교육·경제·정치 등 각 부문의 경영인을 대상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며 시장을 선도하는 경영인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유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 한국영상대학교 제11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방송영상산업의 발전과 영상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과 학사·행정시스템 개선에 매진해왔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인성학교를 설립하고 감사캠퍼스를 구축하며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정상범기자

### 청양군 보건의료원 제8대 김사헌 원장 취임

청양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일 군보건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제8대 김사헌 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김사헌 의료원장은 "환자에게 한발 더 먼저 다가가는 맞춤형 진료와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해 군민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찾아올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직원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데스크 칼럼

# 이완섭 서산시장 대산5사를 향한 고함

김 정 한
취재본부장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난달 29일 시청 대회의실에 기자들을 불러놓고 대산읍에 위치한 5사를 향해 소모성, 눈치보기식 환원사업을 청산하고 진정한 상생을 보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번 고함은 17만5천명의 시민들을 대신해 고함을 질렀다며 시민들은 서산시장답다며 이완섭시장에게 경려에 박수와 희망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시장이 직접 나선을 보면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외치면서 지역을 위한 환원사업은 얼마나 미약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다.

대산에 위치한 대기업들은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희생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메아리로 들려왔다.

이완섭시장이 외친 고함 속에는 대기업이 지역 발전과 서산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한번쯤은 뒤돌아보라는 기회는 시간을 셈이다.

서산시는 울산광역시와 여수시 등과 비슷한 화학시설이 있음에도 추동력을 받지 못하고 공회전하는 자동차에 비유해 대산5사들이 형식에 거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공장에서 내 품는 공해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하지만 시민들을 위해 기업들은 노력이나 희생도 하지 않고 상생발전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서산시민들은 대사5사가 지역과 상생발전을 기피해온 점을 이번 이 시장의 고함으로 전모를 알게 되면서 얌체 같은 행위라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금이라도 외면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지역과 시민을 위해 상생발전의 길에 앞장서 줄 것을 17만5천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기업들은 연간 40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공장 증설에만 혈안을 보이지 지역의 지원은 극히 미미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또한 미흡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과 공해로 인해 환경오염과 건강문제와 각종 사고 등의 위협과 불안요소를 떠안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무시당하고 있는 말에 무게가 있어 보인다.

인근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은 당진시에 문예의 전당, 종합버스터미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 기증하는 등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 대산5사들은 지역기업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은 당연 할 것이다.

대산5사들은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에게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소모성 환원사업과 눈치보기식 기부 그리고 생색내기에 급급할 뿐이라는 것이 지역민들의 목소리다.

이 시장은 그 예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대기 · 수질 등 환경오염 영향조사 및 개선 대책 추진, 지역주민 정기 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 취약 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 문화 · 예술 및 도시기반시설 등 시정현안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주요 예시사업으로 언급한 만큼 대산5사의 입장은 하루빨리 나와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는 이 시장의 고함소리에 "대산공단 입주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설지 시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대산5사는 명심해야 한다.

대산5사는 이제라도 대산공단 입주기업들이 보여줬던 소극적인 자세를 청산하고 서산시와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 대투 논단

# 역피라미드 인구구조의 국가적 위기

김 헌 태
논설고문

1993년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가이드에게 들은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 셋만 낳아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다. 나라에서 그 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는 말이다. 농담처럼 들려준 말이 요즘 새삼 생각이 난다. 당시에는 이해도 되지 않고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고 웃어넘긴 말이다. 지금 돌이켜 보건데 당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있던 프랑스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이런 엄청난 인센티브까지 주며 국민들의 출산을 장려했을까 새삼 깨닫게 된다.

바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이야기가 됐다. 우리에게도 이른바 출산 장려금이 생겼다. 지자체마다 돈을 주고 있다. 충북 청원군에서 지난 2002년 가장 먼저 시행해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다. 지금은 전남 해남군은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35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이상 720만 원 등 비교적 타 자치단체보다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남군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무려 103억5440만원으로 전남 22개 시 군 중 가장 많다. 사실 출산장려금 지급제도는 지금은 전국 243개 대다수 지자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곳의 하나인 인천 옹진군에서는 다섯째 이상 출산엔 1000만 원을 준다. 분할 방식으로는 경북 의성군이 가장 많다. 넷째 이상 출산엔 1800만 원을 지급한다. 전남 완도군은 일시와 분할 방식을 합쳐 일곱째 이상은 2200만 원을 준다. 이밖에 충북 괴산군은 셋째 출산 시 1000만 원, 충남 청양군은 셋째 출산에 3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이다. 경기도 양평도 다섯째아는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심지어 경기 성남시의회에서는 이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셋째 자녀를 낳으면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 안을 상정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개정안에는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현재 1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아를 낳으면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고 3 · 5 · 7살 때마다 2,000만 원씩, 10살 때는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물론 발의의원이 이를 철회해 좌초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최근 들어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모두(冒頭)에서 밝힌 프랑스 사례를 보는 듯하다. 오죽하면 금품을 주는 출산정책까지 등장하는가 말이다.

물론 정부도 '저출산 · 고령사회'를 늦추기 위해 저출산 영역에만 수십조 원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출산율은 불과 1.2명 수준에 머물렀다. 당연히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근본적인 이유인 육아, 보육, 교육환경, 부동산, 경제 환경,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재인대통령도 올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는 사실에 국가적 위기임을 인식하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며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지난 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한민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성이 응축되어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557만 가구로 2015년 570만 가구에서 13만 가구가 감소했고 세 자녀 이상 함께 사는 가구는 3%에 불과해 저출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이 같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보여주듯이 지난 해 65세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3.6%인 678만 명으로 유소년 인구 677만 명을 추월해 버렸다. 당초 예상보다 1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지난 해 통계이니까 총인구의 14%이상이면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는 사실상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1994년에 고령 사회가 된 일본이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8년 밖에 걸리지 않았고 초고령 사회도 8년 정도로 일본 12년보다 4년이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4명 중 한명이 65세 이상이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가 이런 일본이나 유럽 미국보다 너무나 빠르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세종시(9.6%)만 가장 젊은 도시이고 나머지는 이미 전북(18.4%)과 경북(18.2%), 강원(17.2%), 충남(16.5%), 부 산 (15.4), 충 북 (15%), 경 남(14.8%),제주(14.2%)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심지어 전남(21.3%)은 벌써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의 준비나 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노인문제는 흔히 4고(四苦) 즉, 빈곤과 질병, 고독, 무위로 표현되는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듯이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2015년보다 7만가구가 증가한 129만가구로 1인 가구 중 무려 2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여기에다 85세 이상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도 13만 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도 독거노인의 증가이다. 이는 전근대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는 대처가 어려워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90년부터 99년까지 이른바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4월 성공적인 개호보험(介護保險)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했다. 노인요양 보장을 위해 시작한 것으로 의료보험과는 구분된다. 이른바 간병보험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구시대적인 장기요양보험을 가지고는 부양사회화가 급진전된 노인복지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적정수가를 포함해 연금과 의료, 개호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된다는 지적이 거세다.

통계청의 '2016 인구주택 총 조사' 발표는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적 위기문제라며 그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11월 1일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는 5,127만 명이다. 하지만 이래로 가면 2020년에는 5,000만 명 추락하고 매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국가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국가 존립의 문제이다.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다시금 확인한 만큼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점검과 함께 고령사회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어 지혜로운 해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늘 부르짖는 저출산 · 고령사회란 말에 만성화되어 좌고우면하며 때를 놓치면 대한민국 사회는 추동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저출산의 문제로 국가위기에 봉착했다며 심각성을 제기한 것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모든 부처의 가용정책을 총동원해 대처하도록 한 것은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부처이기주의나 복지부동의 행정자세를 탈피하여 과감하고 복합적인 실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혁신이 필요하며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나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라는 것이다. 역피라미드의 인구구조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무리한 다이어트 온몸 골병든다

## 건강 칼럼

김 경 훈
대전바로세움병원 관절센터 원장

다이어트 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왔다. 회사원 최모씨(38세)는 다이어트와 함께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헬스를 시작했다. 헬스를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날 무렵 심한 근육피로와 함께 근육의 통증, 근육경직, 콜라색의 소변이 나왔다. 몸은 자꾸만 피로해지고 근쇠약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병원을 찾은 결과 뜻밖의 생소한 '횡문근 융해증' 진단을 받았다. 또다른 회사원 장모씨(32)는 늘어나는 몸무게와 아랫배 때문에 여간 창피한 게 아니다. 달리기를 시작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한쪽 발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발목 염좌(삔것)가 생긴 것이다. 무턱대고 의욕이 앞서 운동을 하다보면 부상을 당하기 십상이다. 그 중 발목 골절과 염좌, 아킬레스건 파열, 아킬레스 건염, 다리경련 등은 누구나 한번쯤 경험하게 된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 시 자주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 알아보자.

◆횡문근융해증

횡문근은 팔이나 다리 등 움직이는 부위에 있는 가로무늬 근육이다. 오랜 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다보면 에너지 소모량이 커지면서 근육으로 공급되어야 할 에너지가 필요량보다 부족해진다.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도 근육은 수축과 팽창을 한다. 결국 근육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세포 속 물질이 세포 밖으로 터져 나와 혈액 속으로 녹아들어 온 몸을 타고 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외상이나 운동, 수술 등의 이유로 근육으로의 에너지 공급이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때 괴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생긴 독성의 세포 내 구성성분이 순환계로 유입되는 것으로, 이 독성은 신장의 필터장치를 막게 되고, 이로 인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급성세뇨관 괴사나 신부전증을 일으키게 된다. 갑작스러운 고강도의 운동은 오히려 근육을 녹게 한다.

◆발목 염좌

염좌는 인대나 건(힘줄)근육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발목은 해부학적인 위치상 스트레스와 부상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 발 바깥쪽으로 몰려서 몸의 모든 체중이 발목에 실리게 되면 염좌가 생긴다. 부상의 심각성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는데 통증, 압통, 발적, 피멍, 부기와 운동성 결여 등이 나타난다.

RICE요법을 행하고 발목에 체중을 싣지 않는다. 통증과 부기 완화를 위해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발목이 부러진 것 같으면 병원을 찾아 골절 여부를 확인한다.

◆발목골절

발목 골절은 젊은이들이 운동할 때 종종 생긴다. 증상으로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 부기와 피멍 등이 있으며 부위 주변이 가끔 기형으로 변하기도 한다.

골절이 가벼울 때는 염좌와 혼동하기도 한다. 염좌로 추정되는 발목의 통증이 7일 이상 지속되면 인대손상 또는 골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골절이 관찰될 경우 골절부위의 고정을 위하여 깁스로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뼈가 회복된 후에도 부기가 얼마동안 지속될 수 있다. 회복이 되었으면 부기를 줄이기 위해 보호붕대를 사용하며 재활운동을 할 때도 착용한다, 통증 완화를 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복용한다.

◆아킬레스건염

아킬레스건염은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이 되어 파열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아킬레스건은 종아리 근육에 발목을 연결시키는 몸에서 가장 큰 건이며 체중이 앞부분과 발가락에 가해질 때마다 이 무게를 견디어 내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센 건이기도 하다.

발목 뒷부분 바로 위에서 통증을 가장 많이 느낀다. 처음에는 멀리뛰기나 오래 달리기를 등을 할 때만 나타난다. 증세가 발전된 경우, 계단을 오를 때도 통증이 느껴지며 건이 뻣뻣해지고 붓게 된다. 아킬레스건염은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해야 한다.

증세가 가벼울 경우 달리기 전에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하고 종아리 스트레칭 이후에 얼음찜질을 하도록 권한다.

◆아킬레스건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은 종아리 근육을 발목 뼈에 부착시키는 건으로 완전히 찢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근육이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아 발이 땅에서 뗄 수 없게 된다. 아킬레스건이 찢어지거나 파열되면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과 압통, 부기가 잇따른다. 찢어진 건이 피부 밑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것 같으면 즉시 병원에 간다. 건의 끝을 붙여서 봉합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완전히 치유되려면 적어도 6개월이 걸리며 운동성을 회복하고 뻣뻣함을 줄이기 위한 재활운동을 회복기간 내에 실시한다.

◆발의 골절

발의 골절은 발 중앙을 구성하는 발허리뼈에 많이 생긴다. 조깅할 때처럼 발을 구르거나 넘어질 때도 가장 많이 생기지만 길을 걷다가 발을 어색하게 내딛어도 발이 부러질 수 있다. 손상 부위에 피멍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 기능 손실과 함께 형태가 변형 되기도 한다. 발에 압력을 가하거나 움직이면 통증이 악화된다.

◆다리경련

종아리의 경련, 혹은 근육의 수축은 매우 흔히 나타나며 특히, 운동 후나 수면 중에 나타날 때가 많다. 운동으로 생기는 경련은 원활하지 않은 혈액순환이 원인이며 말초혈관질환을 뜻할 때도 있다. 이렇게 생기는 경련은 혈액순환이 아니라 대부분 근육 손상과 관련이 있다. 운동 전후 종아리 스트레칭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경련의 첫 느낌이 올 때 종아리를 수축시켜 경련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발을 바닥에 평평히 대고 걸어 다닌다.

◆무릎건염

무릎의 과사용 증후군 중 대표적인 질환이다. 계단이나 언덕을 오르내리 때 혹은 무릎을 펴서 체중을 지탱하게 만드는 움직임을 할 때 악화되고 무릎전방부에 압통이 나타난다. 이 증세는 달리기를 무리하게 하거나 스키선수, 사이클 선수, 축구선수에게도 나타나며 대개 과사용이나 부적절한 동작에 의해서 생긴다.

◆어깨탈구

어깨 탈구는 상완골의 공 같이 생긴 머리 부분이 관절 밖으로 빠져 생긴다. 어깨로 넘어 지거나 팔이 늘어져서 앞으로 탈구되고 어깨를 가격하면 뒤로 탈구되는 경우도 있다. 심각한 탈구는 어깨를 지지하는 근육 인대와 건(힘줄)을 찢어지게 만든다. 어깨 탈구에는 항상 통증이 잇따른다.

통증과 부기가 가라앉으면 근육 강화와 어깨의 기능회복을 위해 재활운동치료를 한다. 어깨 주위 조직이 손상되면 탈구가 여러 번 재발된다. 늘어지거나 찢어진 조직을 고치기 위해 수술이 요구되기도 한다.

◆테니스 엘보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에 생기는 모든 통증과 염증을 말한다. 주로 손가락과 팔목을 펴게 하는 근육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생긴다. '테니스 엘보'라고 해서 테니스를 열심히 치는 사람에게서만 생기는 병은 아니고 배드민턴 등 손목과 팔꿈치를 사용하는 스포츠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테니스로 인해 이 증상이 나타는 사람은 10% 정도이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 | | | | | |
|---|---|---|---|---|---|
| 발행 · 편집인 | 김 현 정 | 회 장 | 김 성 구 | 논설위원 | 조 정 호 |
| 전화안내 | 042)538-3030 | 기사제보 | 042)538-1601 | 팩스번호 | 042)538-2211 |
| 구독배달안내 | 042)538-1602 | 광고신청안내 | 042)538-1603 | 구 독 료 | 월1만3000원 1부 700원 |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일고 총동문회 정기총회
졸업30주년(2회)
20주년(12회)
기념행사
김경현
(더크로스)
(홍대앞 그녀들)
박하
2017년 9월 9일 (토)
1부: 11시 서일사랑콘서트
(자랑스런 서일후배들을 응원합니다)
2부: 14시 서일고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기념행사
장소: 서일고 강당